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 거행 1985년 12월 14일-15일

**성도의 빛** 2-3  
1986

# 성도의 벗

1986년 2-3월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벗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잠자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고 문 :

칼로스 이 에시, 랙스 디 피네가,  
조지 피 리, 제임스 엠 패러모어

통 권 : 제242호, 제22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6년 2월 1일(겨울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27KO PRINTED IN

KOREA 2-3/86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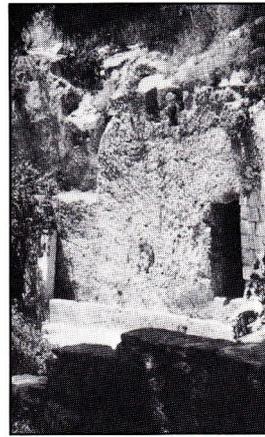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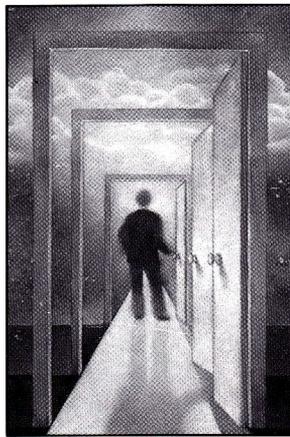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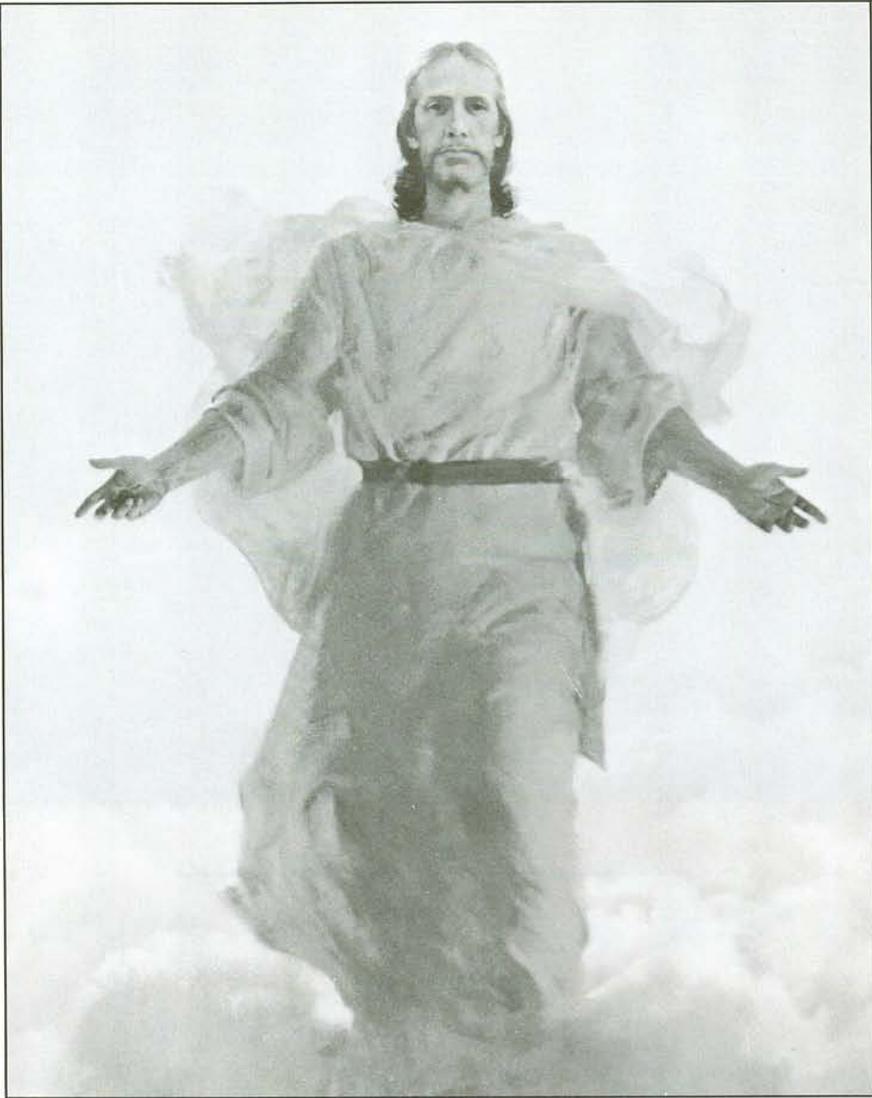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1	부활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말씀
2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라” 매리온 지 롬니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6	부활절의 기적을 찾음 재닌 윌시 바스가드
9	끝없는 진리 탐구 고든 비 힝클리 부대판장
13	시온의 찬송가 : 사랑의 예언자
14	요셉, 탁월한 모험 아더 알 바세트
20	꿈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티 듀크
21	꿈에 경고받음 데이빗 제이 하디
23	시 피터슨 : 전형적인 특별한 말일성도 제니 다카하시
27	너무 늦는 법은 절대 없다 존 케이 카맥 장로
29	질 의 응답 어멜 제이 모턴
30	둘이 함께 걸어야 웨인 비 린
34	첫 시현의 확인 증거 밀턴 브이 백맨 이세
40	덴마크로부터 온 니엘즈(함께 나누는 시간) 존 앤 올슨
41	볼몬나드
42	친구가 친구에게
44	야곱과 에서(경전 이야기)
47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팻트 그래햄
48	지역 회장단 메시지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야곱 디야가 장로,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
50	한국 서울 성전 기도문 고든 비 힝클리 부대판장
52	교회 및 지역 소식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 거행



예언자들의 말씀

## 부활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이곳에서 소유했거나 참여했던 즐거움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나의) 시현은 너무도 분명했었으므로 나는 그들이 무덤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아들이, 어머니, 딸아, 형님,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성이 들릴 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곁에 누워 있다면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즐거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내 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과 서로 열싸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충실할 때,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은 부활 때에 채워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현으로 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보다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죽음보다 멸망에 대한 상념입니다. 나의 부모나 형제 친지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내 가슴은 순식간에 터져 버릴 것이고, 나는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나의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는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모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더욱 큰 즐거움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89-290페이지)



대관장단 메시지

##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라”

매리온 지 롬니 회장  
십이사도 정원희

(이 기사는 대관장단이 개편되기 전에 대관장단 메시지로 발표된 것임)

**모**몬경의 위대한 예언자 야콥은 말일에 사는 우리에게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를지니.”(야 4:10)라는 뜻깊은 충고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께 권고하려 한다는 말은 대체로 알든 모르든 주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에게서 매우 쉽게 발견되는 약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약점을 정복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어떤 은사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영을 진실로 가까이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권고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에는 그 영을 더 가까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자녀를 다루신 역사를 보면 태초로부터 그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실족하고 오직 비참한 것 밖에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고를 따르는 것보다는 그들 주변의 이방 국가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엄숙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려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거케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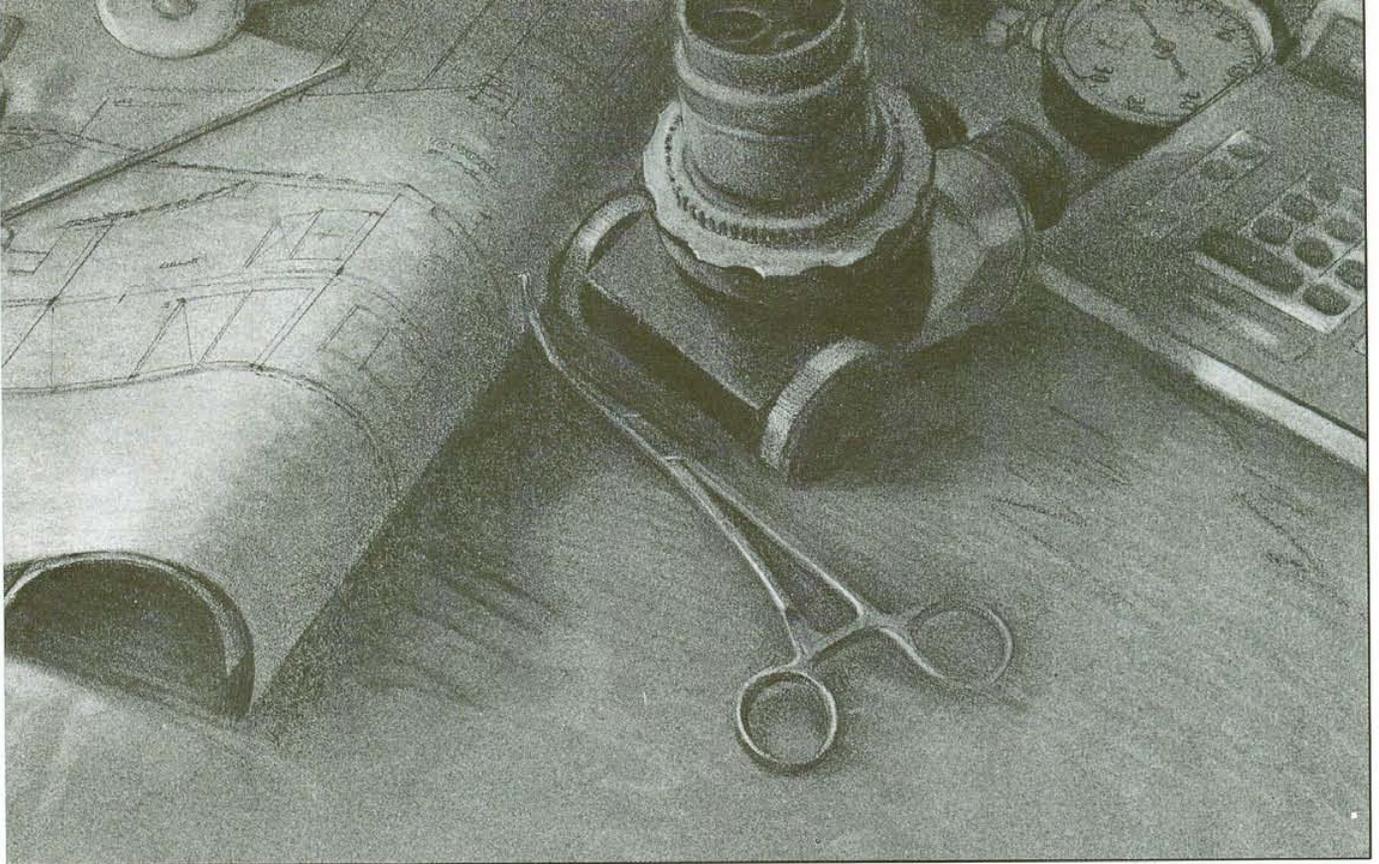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삼상 8:11-20)

사무엘은 그들이 주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한다면 그들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완고함을 몹시



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바른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하건간에 항상 인간의 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이니라.”(삼상 8:7)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세대 지나자 그들의 국이 분열되어 백성은 포로로 잡혀고 이스라엘인은 흩어졌으며, 유대인은 다른 민족 가운데 웃음 거리와 이야기 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슬픔이 치는가 하는 두번째 예는 사울의 애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사무엘을 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의 동물을 절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울은 양, 소, 기린것, 어린 양운데 가장 좋은 것은 살려 두기로 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그를 접하려 나가서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친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삼상 15:13) 사무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쩡이니까.”(삼상 15:14)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좀 당황했는지 별로 자신없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삼상 15:15)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직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왕을 길로 보내시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삼상 15:18-19)

사울은 자신이 주님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여 그 책임을 자기 백성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삼상 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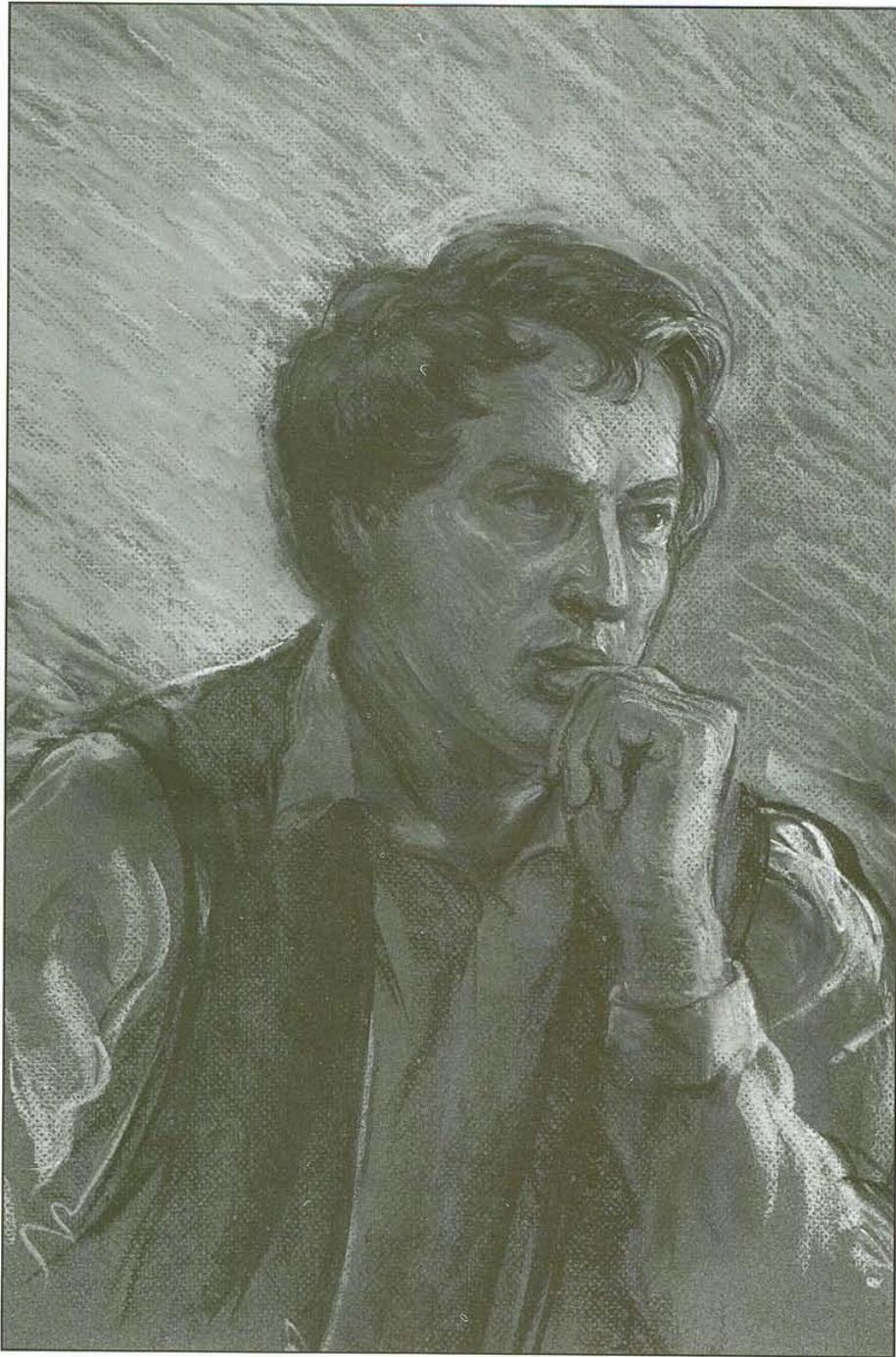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영혼을 꿰뚫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22-23)

주님의 권고에 저항할 때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의의 추종자가 되고 싶어한다면 우리가 “그의 손으로부터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도록 기꺼이 도와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있었던 낮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의 하나입니다. 예언자는 마틴 해리스의 끈질긴 간청에 못이겨 그의 친구 일부에게 보여 주게 하는 것을 주님이 승인해 주시도록 3번 간청했습니다. 안된다는 대답이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허락되었습니다. 거의 3주



후 그것을 분실하지 않았나 하는 요셉의 걱정은 뉴욕주 팔마이라에 있는 예언자의 부모의 집에서 마틴 해리스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크게 번민하며 마틴이 원본을 돌려주는 것을 늦추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거기가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어머니는 요셉, 하이람, 마틴 해리스가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해리스)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할 것처럼 집어 들었으나 갑자기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이람이 그것을 보고

‘왜 안드십니까? 편찮으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해리스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크게 번민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혼을 잃었어요. 내 영혼을!’

“요셉은 그때까지 자기가 걱정하던 것을 꼭 참고 있다가 탁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마틴, 그 원본을 잃었어요? 맹세를 깨뜨리고 당신 뿐 아니라 나의 머리에 저주를 가져왔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잃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마틴이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돌아가야 합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날 있어요? 가장 높이신 이의 천사로부터 어떤 꾸중을 듣게 되어도 마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설득시키려 했으나 그가 자기 가족 전부와 그와 똑같은 마음 상태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순간 그를 위안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흐느끼는 소리, 신음 소리, 깊고 깊은 탄식이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순종의 결과를 좀더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빠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울고 슬퍼하면서 앞뒤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녁까지 그렇게 하다가 강권에 못이겨 약간의 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예상했던, 또 너무나 큰 은밀한 기쁨의 근원이었던 것이 한 순간에 영원히 날아가 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요셉 스미스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가 쓴 요셉 스미스 역사, 프레스턴 니블리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54년 128-129페이지) 마틴 해리스에게 그 기록을 갖고 갈 특권을 주시도록 주님에게 끈질기게 간청한 결과로써 우리와 돌림이 예언자로부터 거두어졌으며, 그 판과 번역할 은사도 함께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나 22세된 요셉은 진실로 회개히 겸손해진 후 이전의 지위를 다시 받았읍니다. 이 사건에 관한 계시에서 젊은 예언자는 “인간의 설득”에 굴복한 것에 대하여 견책받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 그가 “충실”했었다면 주님이 “팔을 펴서 너를 받들어 원수의 불화살을 모두 막아 주셨을 것이요, 번민할 때에 너와 함께 해주셨으리라.”(교성 3:6-8 참조)

예언자 요셉은 이 경험에서 배운 근본적인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읍니다 그는 주님의 총애를 다시 언자 회복의

대한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하여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이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받는 인도와 권고에 의하여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리하이はその 아들 야곱에게 권고할 때 매우 강력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의 지혜로 이루어졌느니라.”(니이 : 24) 이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정비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지만, 한정된 육신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간의 지혜를 만물을 아시는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데 틀림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해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하니라. (고전 1 : 20, 25)

지금 나는 많은 교회 회원이 식적으로 주님께 귀 기울이기보다 간의 설득이나 자기 자신의 훈계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훈계로 계속 고발하는 상태에 우리 스스로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고 대신 리들 스스로의 권고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주님께서 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계를 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인생의 경이 주님의 권고에 대한 지식을 완전하게 합니다. 첫째, 우리 시대는 문화 시대입니다. 우리의 과학, 산업, 업은 모두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화되어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특장 분야에 관하여 점점 더 많이 배워야 하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 전체의 일부분밖에 점유하지 않고 있는 그 전체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과 전전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가운데 손에 일정표를 든 상태에서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여행하고 기다리는 동안 온 세상과 그 문제들이 우리의 언론 매체와 기술과 생활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와중에서 주님의 훈계를 찾을 시간을 별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제책을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성 43 : 34)는 주님의 훈계에 순응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라는 주님의 훈계에 순종한다면 영원한 엄숙함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경전을 연구하면서, 가족 토론을 하면서 의로움으로 주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의 각자 책임에 관한 주님의 훈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안내자 없이 암흑 속에 버려져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훈계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압니다. (1)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경전, (2)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훈계, (3) 우리 각자 자신의 책임이나 환경의 범위내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개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영감과 계시입니다. 이런 생수의 샘을 깊이 들이마시면 교회 회원 모두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실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거나 너무 피곤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생수로부터 오는 더 많은 힘과 지혜와 영감은 여러분이 기울이는 노력을 몇 곱절이나 더 보상해 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능 즉 의로운 소망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부름을 갖고 시작한 모사이아의 여러 아들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공식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엘마가……가려고…… 지나고 있을 때, 보라 제이라헤틀라를 향해 오던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만나 놀라더라.

“이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엘마에게 처음으로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함께 있던 자들이라 이들을 만나게 된 엘마는 대단히 기뻐하였고, 엘마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주님 뜻 가운데서 자기와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됨이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더라.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앨 17 : 1-3)

우리도 모두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모두 주님을 권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주의 훈계를 따”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께 권고하려 한다는 말은 대체로 알든 모르든 주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훈계나 인간의 설득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우리 인생의 환경이 주님의 권고에 대한 지식을 불완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광범위한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론 매체와 기술과 우리 시대의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주님의 훈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3. 그 구제책은 그의 훈계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경전 공부할 때, 가족 토론을 할 때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경전,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훈계, 우리 각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영감을 통하여 주님의 훈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주님의 훈계를 알고 따르는 것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은 이야기한다. 가족이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크게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까?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부활절의 기적을 찾음

제년 월시 밋스가드

매년 부활절이 되면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세주께서 지상 생활을 하신 성지로 생각을 돌리게 된다. 어느 해에 나는 직접 부활절의 기적과 부활을 발견하고 싶은 소망을 안고 성지를 방문했다. 나는 도움이 되는 많은 것을 발견했으나 부활절을 발견하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내가 찾던 것을 바로 우리 집에서 발견한 것이다.

어떤 고고학자들은 동산의 무덤이 예수님을 묻었던 장소일 것이라고 말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 같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께서 성지를 방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장소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거기 서 있는 동안 무언가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또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난 극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은 환상에 젖었다.” (성도의 벗, 1984년 5월호, 36-41페이지 참조)

그 동산 무덤은 고도 예루살렘의 복잡한 시장과 점포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고도의 주 출입구인 다마스쿠스케이트를 나와서 길을 건너 벽으로 둘러싸인 동산을 향하여 보도로 걸어 올라갔다. 그곳은 평화로운 장소였다. 고목들이 머리 위에 아아치를 이루고 오후의 미풍 속에 흔들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온갖 색깔의 꽃이 길 옆에 줄지어 있었다. 그 정원의 한쪽 부분에 있는 암벽에 무덤이 하나 파져 있었다. 한때 큰 돌이 앞에 굴러져 있었던 흙을 아직도 볼 수 있었다. 아마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의 하나이리라.

그러나 동산의 뒤로 언덕을 기어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골고다 또는 “해골”(요 19:17 참조)이라 하는 곳을 바라보았을

때, 복잡한 교통 소음과 성난 버스 운전사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대기 속에서는 차량의 배기 가스 냄새가 풍겼다. 이토록 갑작스런 차이는 실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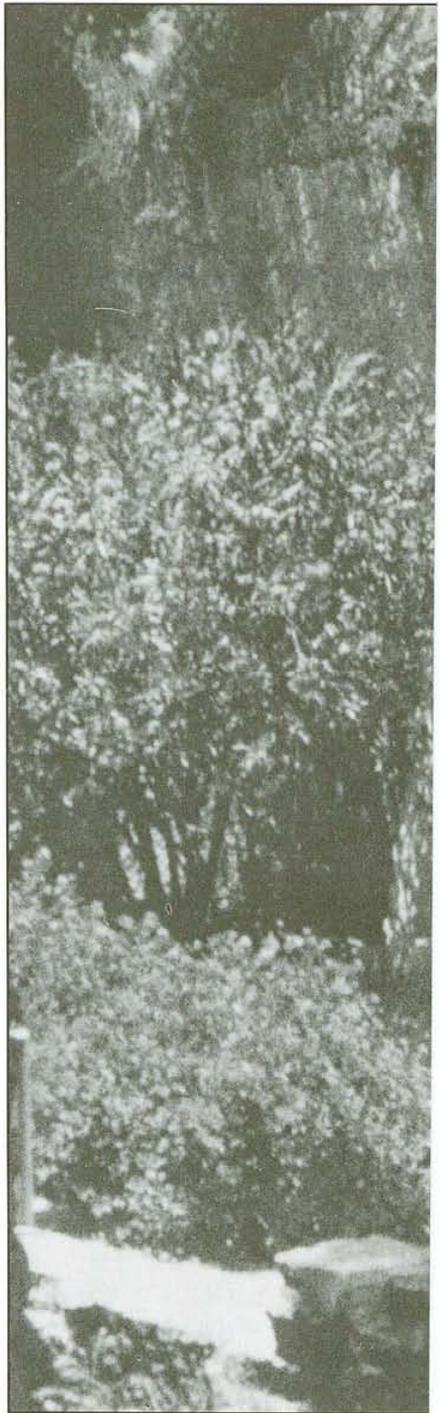
나는 다시 동산으로 걸어가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서쪽 지평선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태양이 빛을 비추어 동산의 나무와 낙엽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게 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땅에 떨어지는 낙엽은 썩어서 땅의 일부가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내년 봄에는 새 생명이 솟아날 것이다. 겨울이 와서 나뭇 가지를 검게 얼붙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봄이 오고 작은 나뭇잎 싹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이 동산의 생명 주기가 영원한 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절에 따라 변화가 생겼지만 각 계절은 모두 살고 죽고 다시 사는 계획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바로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새 날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다시 솟아올라 밤의 암흑을 대낮의 빛으로 바꿀 것이다. 문득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산 무덤에 있는지 우리 집에서 노을을 바라보거나 나뭇잎이 사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든지간에 부활절의 기적은 매일 내 주변과 나 자신의 내부 사방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 세상이 사실은 거룩한 땅으로서 부활의 증인이다.

그날 밤 동산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장소 그 자체가 영적인 경험을 주거나 억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서 신성한 느낌이 자동적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자세만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은 부활절 아침에 그 성스러운



제니 톰슨 작

동산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을 특권을 받은 사람들 못지 않게 집에서 부활절의 깊은 의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부활절의 기적은 매일 우리



변 사방에서 분명히 나타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재닌 윌시  
스카드는 유타주 스페니쉬포크 워드  
원이다.



# 끝없는 진리 탐구

2는 비 힝클리 부대관장

1관장단 제 1 보좌

이 기사는 대관장단이 개편되기 전에 대관장단 메시지로 발표된 것임)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우리의  
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추구에는  
상적인 지식 뿐 아니라 영적인 진리와  
교적인 진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는 우리의 책임은 연구하고  
우리는 제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3: 118)

그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안되며,  
음과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교성  
3: 79)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장하라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은 충분히  
웠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의 한 면에서 문이 닫히면 다른  
에서 문이 열리며, 우리는 거기서  
속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우리의  
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추구에는  
상적인 지식 뿐 아니라 영적인 진리와  
교적인 진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선하고 아름답고  
정적인 것을 찾읍시다.

나는 매일 두세 가지 일간 신문을  
도록 노력합니다. 때때로 사설  
론가의 난을 읽습니다. 가끔씩  
레비전 및 라디오 논평가의 말을  
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똑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잘 구사하는  
람이며 문장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에 그들이 누구에 대하여  
든지 약점과 결함을 찾고 있는 것같이  
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하며

좀처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방식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평론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투고하는 편지  
가운데에서도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이나 자기 친지에게 선한 것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쓴  
것이 있습니다. 비판주의, 결점찾기,  
악한 말하기가 오늘날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성서적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인격자는 어떤 곳에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공익  
회사들이 우리에게 초과 징수를 해서  
우리에게 강도짓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모욕적인 말, 비꼬는 말,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하여 공격하는 말이 들립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대화의 근본이 될 때가  
너무 흔하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비판적인 공격을 받아 부인이 울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파탄을 일으킵니다.  
비판적인 생각은 이혼의 씨앗이며 우리  
젊은이에게 반항심을 키워 줍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자기 존중심을 파괴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비활동의  
씨앗을 뿌리고 중국에는 배도로 이끌고  
갑니다.

나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문제를  
찾는 것을 멈추고 햇볕을 좀더 충분히  
만끽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헤치고 가는 동안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여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모욕과  
비꼬는 말을 중단하고 미덕과 노력을  
좀더 관대하게 칭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비판이 일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으로부터 성장이  
옵니다. 회개로부터 힘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실수를 인정하여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선을 찾고 서로  
상대방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서로의 미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비판론 대신에 낙관론을 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을 때 부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비판론자는 아무런 공헌을 못하고,  
불신자는 창조하지 못하며, 의심하는  
자는 달성하지 못한다."

사물의 어두운 면을 보면 언제나  
비판적인 생각이 들며, 그로 인하여  
패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국민이  
깊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국민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이었습니다. 나치 군대가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벨기에,  
네델란드,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소련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대부분이  
이 폭정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며 영국이  
다음 번 희생자가 될 차례였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천길만길 곤두박질치는 순간에 처칠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시다. 오히려 굳센 나날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어두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조국이 살아 온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인생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시기를 기념할 만한 시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역할을 하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모두 하나님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1941년 10월 29일, 영국 해로우 학교에서 행한 연설)

그보다 1년 전에 영국이 유럽을 침공해서 적을 격퇴시키려고 했던 불란서의 던커크에서 있었던 엄청난 군사적인 재난이 있는 후 어두운 미래를 점치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엄숙한 시기에 이 탁월한 사람인 처칠이 이런 연설을 했는데, 나는 그가 온 세계에 방송된 이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화되거나 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불란서에서 싸울 것이며,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이며, 점점 더 커지는 자신감과 힘을 갖고 하늘에서 싸울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섬을 지키고, 해변에서 싸우고, 상륙 지점에서 싸우고, 평야에서, 길에서,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1940년 6월 4일, 영국 런던, 영국 의사당에서 행한 연설)

어두운 전쟁의 구름을 뚫고 멀리 승리를 내다 본 것은 바로 이 연설이었으며, 영국 국민을 구하고 영국을 그 재난으로부터 구한 것은 비판론자들의 비판적인 힘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심없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걸쳐 압력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름 속을 뚫고 햇빛을 찾으십시오. 결국에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음울한 예언자들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도록 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권고는 주님의 회원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 가운데 많은 비판자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은 신성한 것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업신여깁니다. 어떤 비판자들은 우리가 우리 역사의 파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에게서 결점을 찾아 내려고 ping장히 애씁니다. 우리가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에 반대한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36)고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심각한 비난입니다. 매년 젊은이 교육에 우리들의 재정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투자하는 교회에 대하여 좀 지나친 비난입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의 영광과 훌륭함에 대하여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점을 찾는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의 사업의 위대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접화된 영적인 불꽃에 대하여 눈이 먼 사람들이니 그 불꽃이 지금은 온 세상에 걸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언어에서 신앙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철학에 따름으로써 성령의 영향이 우리 조상들의 마음과 행동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그들의 행동에도 깊은 상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가 지성만큼이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한때 이렇게 읊었습니다.

오 세상이여 그대들은 더 좋은 부분을 택하지 않는도다.

현명하기만 하고 내적인 시현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은 지혜가 아니로다. 마음을 믿는 것이 지혜로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위대한 대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과거의 사람들을 알잡아보고 깎아 내리는 사항만 택하여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좋지 않은 항복을 읽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훌륭한 음식을 드는 대신에 그저 몇 입 맛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히 교회 회원으로서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할 때 자기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보다는 힘과 선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실수를 했으리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실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는 그들이 성취한 놀라운 업적과 비교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실수를 강조하고 더 선한 일은 숨기면 사물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추하고 부정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뺨에 사마귀가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귀를 다른 모습과 비교하여 너무 강조하면 그 초상화는 품위를 잃게 됩니다.

지상을 걸었던 분 가운데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완전한 사회를 건립하시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때때로 넘어지거나 그들의 성격에 어떤 면에서 약간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많이 성취했다는 것에 대한 경이감은 더 큼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장과 열의로 이끄는 긍정적인 면을 찾는 태도를 개발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는 이 사업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상황과 사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늘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일부 사건에 관하여 좀 다른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직한 지성인은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수긍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책의 어조는 모두 똑같으나 여러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특별히 선택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읽고 조화시킬 때만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장 완전한 상태에 가깝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사실이 올바른 문맥으로 되어 이 조직의 위대한 성장과 권세를 설명해 주는 요소가 강조되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은 오늘날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 사업의

때때로

우리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름 속을 뚫고 햇빛을 찾으십시오.

결국에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대한 영감은 전적으로 놓치는 것같이 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주의에 대하여서도 몇 말씀 드려야 합니다. 어떤 학자가 한번은 우리 회가 지성주의의 적이라는 견해를 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성주의를 “지식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이 순수한 논리로부터 나오며, 그리자 궁극적인 실존 원리라는 교리”를 르치는 철학 지파라는 의미로 말한다면 령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적용하기에는 령게 편협한 해석에 반대합니다. 켈덤하우스 영어 사전, 738 페이지에서 용) 그런 해석은 인간에게 또 인간을 하여 말씀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의 발전을 믿지만 성만이 유일한 지식의 근원은 아닌 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에 따라 어져 이렇게 훌륭한 말로 주어진 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는 성신의 은사로써……지식을 회에게 주시리라.”(교성 121 : 26) 주님의 사업을 비판하는 인본주의자 및 위를 떨어뜨리는 지성주의자들은 영적 현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야기할 림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지도

않고, 그에 합당하도록 준비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식은 논리와 마음의 작용으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하여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실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얻은 지식이 오감의 작용을 통하여 얻은 것 만큼이나 실질적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 대부분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 성령에 일치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생애가 풍요로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혈연 관계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의 단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만적인 주장에 말려 들지 맙시다. 이것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신 열매를 맺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걸읍시다.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확신있는 태도를 발전시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한번은 구세주께서 우리 사이로 걸으시던 중에 오랫동안 병들었던 한 여성이 그의 옷을 만졌읍니다. 주님은 자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셨읍니다. 그의 힘이 그 여인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 : 31-32)

우리 시대에 너무나 횡행하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 줄 감미롭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기쁜 소식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영광스러운 성취의 사업입니다.

어두운 시련의 순간에 주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이런 위대한 확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 대한 췌블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에 대한 신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약속은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

(이 말씀은 힐클리 부대관장께서 1983년 6월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졸업식 행사 때에 전하신 것을 편집한 것이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추구에는 세상적인 지식 뿐 아니라 영적인 진리와 종교적인 진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진리를 추구할 때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을 찾으십시오.
3.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짝아 내립시다. 자기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보다는 힘과 선을 찾으십시오.
4.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음울한 예언자들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도록 버려 두지 마십시오.
5. 우리는 마음의 발전을 믿지만 지성만이 유일한 지식의 근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교성 121 : 26)

토론시 유의 사항

1. 진리를 찾고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태도를 키우는 것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크게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까?

# 사랑의 예언자

God Bless Our Prophet Dear

Harry A. Dean

Bernard Snow

기도하는 마음으로 ♩=76-96

1. 사 랑 의 예 언 자 기 뵘 과 강 건 을  
 2. 예 언 자 말 대 로 주 님 의 왕 국 이  
 3. 하 나 님 아 버 지 그 아 들 과 같 이

누 리 소 서 예 언 자 말 씬 에 힘 주 사  
 궤 저 나 가 진 리 로 말 불 불 고 하 나 가  
 우 리 성 도 언 제 나 맘 과 손 맞 대 어

의 록 게 택 하 도 록 축 복 해 주 소 서  
 되 어 서 목 표 도 해 나 가 게 하 소 서  
 영 원 히 설 수 있 게 축 복 해 주 소 서

교성 107 : 22

니삼 19 : 23

# 시온의 찬송가

1830년 7월에 주님께서 예언자의 부인인 엠마 스미스에게 말일성도의 찬송가를 편집하라고 지시하실 때 회의는 아직 탄생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 사실만 해도 교회에서 찬송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다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교성 25 : 12)

엠마는 유능한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의 도움을 받아 1835년 8월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찬송가를 편집해서 출판했다. 그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영광만을 기념하여 구하면서 수집한 이 찬송가가 많이 작곡되어 광범위한 시온의 노래로 축복받게 될 때까지 모든 목적에 적합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망한다.”

말일성도의 첫 찬송가가 출판된 후 50년 동안 “광범위한 시온의 노래”가 이어져서 성도들의 음악과 문학의 일부가 되었다. 많은 찬송가가 소중한 표준이 되어 온갖 나라의 성도들이 이를 노래하며 사랑하고 있다.

교회 본부 음악 위원회의 위원장인 이클 에프 무디는 “역사적으로 봐서 이제 사랑받는 찬송가 가운데 많은 곡은 작곡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하여 직업 사되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사람들이 연관을 지울 수 있는 찬송가를 창작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의 살아 있는 교회에서 계시는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계시의 열매인 증거는 뒤를 잇는 세대가 모두 간직하게 된다. 어떤 세대나 자신의 특정 상황에서 음 원리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떤 세대이나 자신의 간증과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곡조와 가사로 표현하도록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무디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은 원래부터 기능적이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줍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필요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은 변합니다. 좋은 찬송가는 그 세대의 사람에게 교통하며 위대한 찬송가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됩니다.”

최근 수년 동안 교회 회원들이 약 6천 곡의 찬송가를 제출했다. 무디 형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 제출한 찬송가에는 복음에 대한 큰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든지 그 배후에는 그것을 창작하도록 영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한 새 찬송가 가운데 상당한 곡이 영어판 새 찬송가를 편집할 때 포함시키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 중에 특히 재미있는 것은 총관리 역원이 쓴 가사가 있는 몇 곡의 찬송가이다. 대관장단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내 주주 살아 계시다”의 가사를 썼다. 그 가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이었던 고 지 호머 듀럼 장로의 곡과 합쳐졌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 브리스 알 맥쿱키 장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를 썼다. 이 두 찬송가는 모두 1986년에 성도의 빛에 출판할 것이다.

우리 회중은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용으로 쓴 찬송가-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새 찬송가에 포함된다. 음악 위원회의 마빈 가드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린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린이들이 아는 노래와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그들이 좀더 자신도 회중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게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일반적으로 어른도 좋아합니다.”

이 새 찬송가는 또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에서 온 곡도 포함시켜서 이 교회의 국제성도 반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상당히 잘 알려진 말일성도 찬송가를 좀더 간단하게 편곡해서 수많은 언어권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좀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런 새 찬송가를 성도의 빛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대관장단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영감을 주는 음악은 교회 모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부르고 경건한 마음을 만들며, 우리를 회원으로서 단합하게 해주며,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회개와 선한 사업으로 나아가고, 간증과 신앙을 쌓고, 지친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도록 영감을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회중에, 가정에, 개인 생활에 주님의 영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찬송가를 이용합시다. 찬송가를 외우고, 깊이 사색하고, 암송하고 노래하며, 찬송가가 주는 영적인 영양분에 참여합시다. 의인의 노래는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에게 바치는 기도이며, 우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

# 요셉, 탁월한 모험

아더 알 바셋

어린이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두 명의 다른 사람의 혼합체로서 두 부모를 한 육신으로 결합한 존재이다. 그뿐 아니라, 어린이가 자기 부모의 특성 즉 말하는 태도, 손짓, 웃음, 의복에 대한 의식 등등을 닮는 방식도 재미있다.

이 때문에 계보도 나의 관심을 끈다. 때때로 나는 나의 내부에 지금도 우리 조상의 특성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나의 매너, 육체적인 특성, 성격상의 특성에서 얼마나 멀리 계보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우리 조상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상세한 기록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자신과 비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 전체 조상에 대한 우리의 식견은 불완전하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계보 내용은 가장 먼 옛날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족 역사를 읽고 있으며, 우리가 그런 사람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다.

우리 가운데 이라크이 조상의 고향이라고 주장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지만, 바로 거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성장한 곳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시리아를 아주 낯선 외국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요셉처럼 우리의 할머니인 리브가와 라헬도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인 요셉이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부인이며 우리의 할머니인 아스낫은 애굽인이었을 뿐 아니라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절반은

애굽인이었다. 우리의 계보의 뿌리를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온 세계에 속한 시민이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것이 우리의 먼 친척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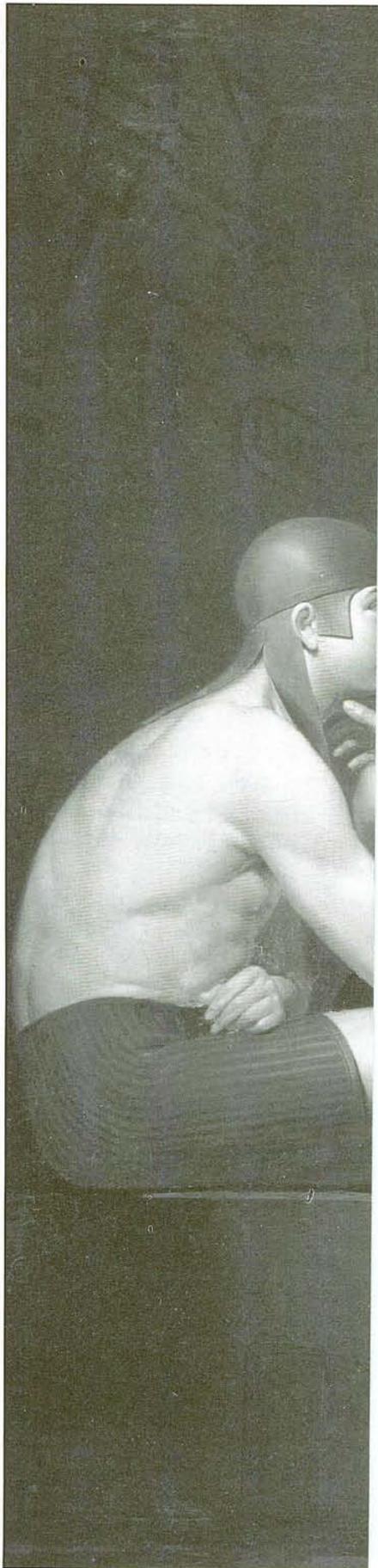
비록 우리는 기록이 없는 공백으로 인하여 이 초기의 조상들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모방할 가치가 있는 모범을 찾을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의 축복사의 축복에 요셉이나 그의 아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이 점에 있어서 좋은 예이다. 우리가 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뛰어나게 될 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해의 영광에 들어갈 후보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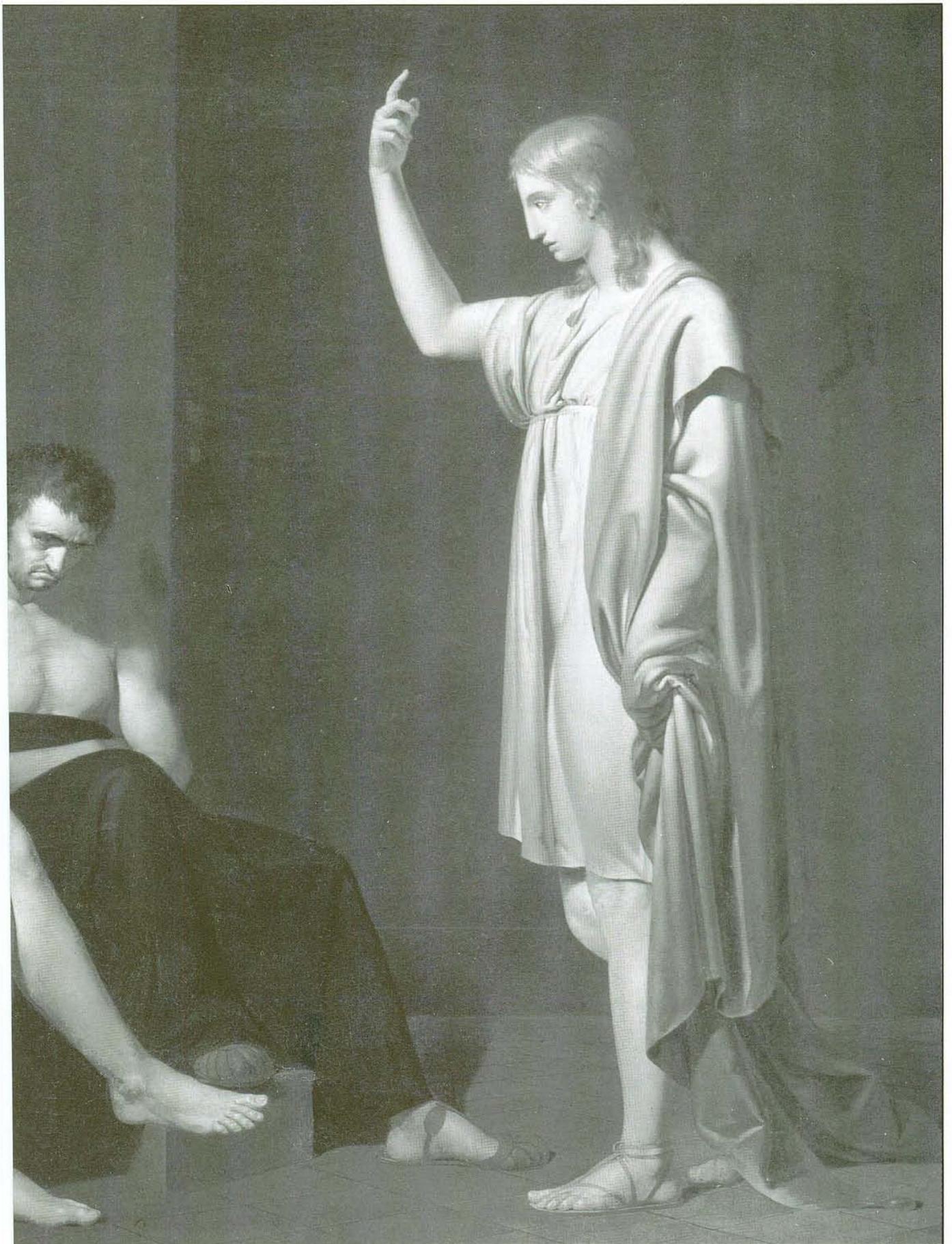
## 야곱과 라헬의 장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랑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는 인물이었다. 요셉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청혼하기 위하여 14년이나 봉사한 아버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모세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첫 일곱 해를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창 29:20)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결혼한 후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다. 그의 언니인 레아는 라헬이 첫 아들 요셉을 축복받기 전에 아들 여섯에 딸 하나를 낳게 되었다. 셋째 아내인 빌하와 넷째인 실바는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각각 두 사람씩 야곱의 자손을 낳게 되었다.

그때 야곱은 거의 90세가 되어 사라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낳을 무렵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와 거의 비슷했다. 야곱과 라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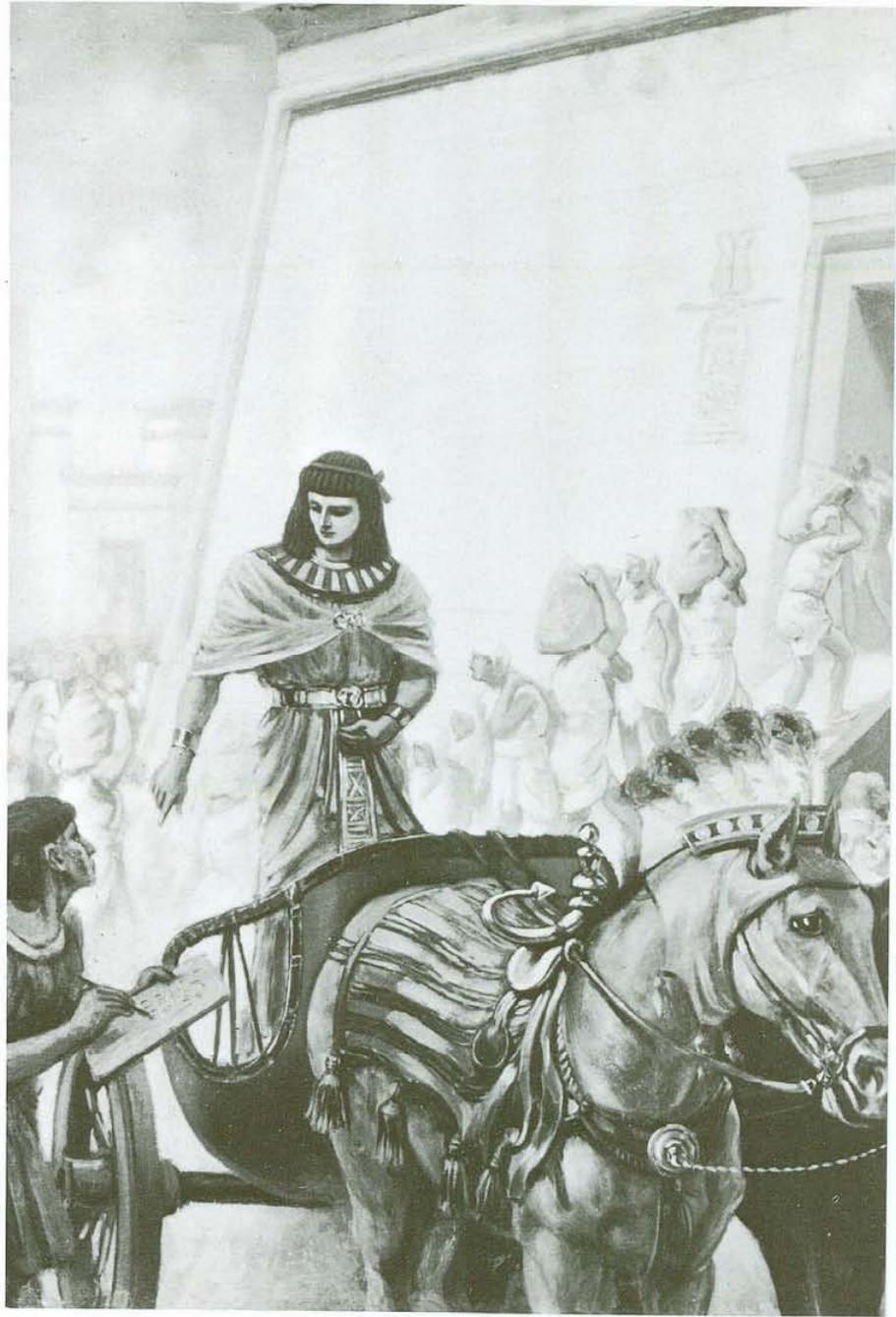
**요**셉이 22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자기 형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이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으므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러나 요셉이 태어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라헬은 다른 나라에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다. 17년 이내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가서 야콥은 아들 요셉을 잃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한다. 야콥이 성장해서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요셉과 다시 상봉하는 것은 거의 사반 세기 후의 일이었다. 이렇게 다시 상봉한 후 30년이 지났을 때, 야콥 자신이 죽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 묻히게 된다.

요셉이 이 생애에서의 첫 17년을 얼마나 많이 기억했는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가 자기 출생지인 하란에 대하여 많이 기억했을까 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치 않다. 요셉이 태어난 직후 야콥은 그의 가족을 모국으로 데려갔는데, 그 땅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부친이 할아버지인 라반과 헤어지는 극적인 장면의 그 긴장과 부친이 삼촌인 에서와 20년이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의 그 염려하는 모습에 관하여 어떻게 기억했을까? 야콥과 에서가 헤어진 것은 야콥이 에서의 노여움을 피하여 생명을 건지려고 몸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대부분의 이 시기에는 아기였을 것이므로 많이 기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부모가 보기에는 요셉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총애를 받은 이 젊은이는 아버지로부터도 큰 총애를 받았으며, 특히 그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사랑을 받았다.



### 모세와의 친척 관계

2세기 이후에 살았던 모세에게는 요셉이 또 다른 면에서 크게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 틀림없다. 아마 모세도 자신의 유명한 친척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요셉의 시신을 관에 담아 다닐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모세가 이스라엘인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뱀으로써 그들을 구했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그들을 구원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 두 사람 다 애굽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자기 형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 두 사람 다 유능한 행정가였고, 주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았다.

모세는 어디서 요셉에 관한 지식을 얻었을까? 그가 모세 오경을 쓰는 동안 요셉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그의 기록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다른 요셉이 받은 것처럼 제시로

그것을 받아 알았을까? 혹은 먼 빛날에 요셉이 직접 적은 기록을 읽고 알았을까?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담겨 있는 요셉의 예언은 모세에게 특별히 흥미가 있었을 것에 틀림없다.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 낼 선견자를 한 사람 세우리니 그가 모세라 불리우리라 그리고 이 이름으로 그는 자기가 나의 권속이라는 것을 알리라. 그는 공주가 키우며 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리라.’ (요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 : 29)

또 요셉은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의 물을 쳐서 이스라엘 자녀를 속박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인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대변인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모세가 이런 예언을 읽은 것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이었는지 그 후였는지를 알면 재미있을 것이다. 이전이었다면, 그런 예언이 그의 행동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모세에게 주어진 지식에는 또 요셉의 후손 가운데 한 지파가 이스라엘 주류로부터 분리된 후 그의 후손이 적은 기록에 관한 요셉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예언이 말일의 이스라엘에서 선견자로 선택될 또 다른 요셉 즉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을 요셉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이런 예언은 또 이 다른 요셉 즉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세가 번역한 요셉의 후손의 한 기록인 물문경에도 담겨 있다. (나이 3장 참조) 요셉의 예언에 관한 리하이의 말에서 구약의 요셉에 관한 니파이인들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다.

“그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보다 더 큰 예언이 많지 않음이라. 또한 요셉은 우리들의 일과 우리들 이후의 세대에 관하여 예언하셨으며, 그 예언의 말씀은 늦쇠판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이 4 : 2)

그리고 결국은 이 레이밴의 늦쇠판에 요셉의 기록이 담겨져 있었다. 저들은 리하이의 조상을 거슬러 요셉에까지 연결해 놓았다. 여기에는 역시 요셉의 후손이지만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지니프와 지노크 등과 같은 예언자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는 없는 요셉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로나이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 말하면서 가져온 요셉의 외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야곱은 아들에 대한 추억으로서 그 외투의 조각을 보존했었다. 나중에 죽음이 가까왔을 때 야곱은 이제 반세기 이상이나 된 그 보존했던 외투 조각을 보면서 그 잔유물의 일부가 보존되었던 것처럼 요셉의 씨앗의 일부가 보존될 것이며 일부가 부패한 것처럼 요셉의 씨앗 가운데 일부는 주님께에서 떨어져 나가리라고 예언했다. (앨 46 : 25-27)

### 성서 학자들의 도취

성서 학자들도 요셉과 그의 이야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원형 즉 앞으로 낙질, 특히 메시아의 생애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예언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표명했다. 성경 역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좋은 예는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을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는 것에 비유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갈 4 : 22-31 참조) 그 전반적인 개요에 있어서 요셉의 생애에 관한 기사가 구세주의 생애에 관한 훌륭한 예표가 된다.

그는 아버지가 총애하는 아들로써 반항적인 형제들에 대한 임무를 띠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 그의 형들은 그가 아버지와 가깝고, 그가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에 반감이 나서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를 학대하고, 마침내는 그를 없애려는 노력으로 그의 생명을 “취”한다. 그의 인생의 다음 단계는 굴에 빠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애굽의 감옥에서의 경험으로 종결짓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옥 구덩이로 내려가셔서 영옥에서 선교 사업을 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나오며, 그 왕국의 통치자 다음으로 높은 권좌에 오른다. 형들이 벗겨 간 그의 옷(그의 육신의 상징) 대신에 장엄한 의상을 입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그는 새로 승격한 지위에서 자기 형들의 구조자가 되어

용서하고 먹었는데, 즉 생명의 떡을 먹인 것이다.

요셉이 왜 성경 학자와 토마스 만 같은 문학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는가 하는 것은 알기 쉽다. 토마스 만은 요셉과 그의 형을 주제로 하여 4권의 책을 썼다. 그러나 나는 그의 후손인 우리가 요셉에게 굉장한 흥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는 위대한 역사 및 종교적 인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모범도 될 수 있다.

###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만일 우리가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그의 성격의 특성을 얻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더 풍요롭게 되고 일반적으로 더욱 성공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지식을 얻는 길을 보여 주며, 그런 면에서 우리 조상 요셉에 관하여 (또는 누구든 의로운 조상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연습이다. 고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야 하는지 설명하신 일이 있다. 맥콩키 장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도록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아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경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전서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1966년 4월 연차 대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자격을 주는 성품상의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셨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벧후 1:5-8)

하나님의 방식과 그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방식을 따르려면 용기 — 베드로의 덕성 — 와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절제와 자아 통제가 필요하다. 기독교인으로서 기쁨이 있는 노력의 결실을 보려면 인내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경건한 마음도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형제로서의 친절이 필요하고, 또 그 친절을 그리스도처럼 참된 사랑으로 꽃피워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해야 한다.

### 요셉의 신앙과 덕성

요셉은 이런 모든 특성을 실현한 산 표본이었다. 그에게는 정말로 이런 특성이 넘쳤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은 거의 극한 지점까지 시험되었다. 누구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요셉이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르친 것으로 인하여 배척당하고 노예로 팔려 갔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 것 때문에 거짓된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갇혀 2년 이상이나 옥살이를 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되어 있었던 요셉 스미스는

감옥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교성 121:1) 애급의 요셉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 틀림없지만 어떤 기록을 보아도 그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는 자기 인생에서 닥치는 어떠한 사건에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베드로가 열거한 특성 가운데서 두번째인 덕성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에서 나타내 보인 성적인 순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다. 영어에서 “덕성”이란 단어는 원래 남자다움, 힘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인자로 알려지게 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살면서 요셉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생활 방식을 따랐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여자들만 그에게 마음이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남자들도 많은 사람이 그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즉시 깨달았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의 일을 관리하게 했으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감옥에서는 간수가 그를 다른 죄수들보다 위에 두었으며, 바로는 그를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 요셉의 지식과 인내력

베드로는 “덕에 지식을……공급하라”고 했다.(벧후 1:5) 하나님은 유식한 제자를 두기 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전 14:20)고 기록했다. 눈먼 신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한 복동이 세계적인 권력의 권좌에 오른 것을 생각할 때 요셉이 쌓았을 지식과 이해력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원래는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을 통하여 지식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가 애급 정부에서 맡은 지위에서 얻은 지혜와 특히 애급의 농작물과 땅을 관리하면서 얻었을 지혜에도 주목해야 한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급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바로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3,39)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의 영적인 힘을 인정한 말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세상적인 행정에 있어서의 요셉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요셉의 자기 통제와 인내심은 그의 생활 방식에서 거듭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보디발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나타나고, 그가 오랫동안 감옥에 살면서 가까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유태인 역사가인 조세퍼스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 조세퍼스는 빌라도 앞에 서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게 이렇게 적고 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일을 주님에게 맡기고 나서 자신을 옹호하려 하거나 상황을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말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겪는 속박과 비탄을 잠잠하게 겪으면서 그의 고난의 원인과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린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유태인의 고대 풍습 제Ⅱ권, V:1)

### 요셉의 신앙과 사랑

신앙도 또 요셉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그의 이야기에서 그가 주님을 가까이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생애의 어떤 일에서나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고 거절했다. 그는 애급에서 형제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를 애급에 판 것은 그들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을 안심시켜 주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 형제로서의 친절과 사랑의 특성에서 가장 그리스도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 요셉은 그의 아들



23세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1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창  
1:51) 그러면 요셉이 22년만에  
귀음으로 다시 자기 형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찼을까? 다시 그가 형들의  
김정을 알 때까지는 그들에게 자기가  
어디까지 밝히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의

평강한 인내심을 알게 된다.

요셉이 그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벌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의 감정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장면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면 역사를 한참  
추적해야 할 것이다. (그때 요셉은  
통역자를 통하여 늘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몰랐다.)  
요셉은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엄한 반응을  
보였으나 두 번은 너무나 감정이  
격해서 눈물이 나와 형제들에게 자기  
얼굴을 들어내지 않기 위하여 그 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면, 그가  
그리스도같은 깊은 사랑을 갖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조상 요셉을 많은 것에  
대하여 즉 그의 신앙, 덕성, 지식,  
관용과 인내 및 그의 신앙심에 대하여  
존경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형제로서의 친절과 사랑에 대하여  
존경한다. 이런 것이 그의 가장  
하나님같은 성품이다. 이런 것이 바로  
그가 구세주와 그의 후손인 우리와의  
공통점이다. 이런 것이 바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 탁월한 모범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모방하려고 해야  
하는 특성이다. 그는 이 세계가 산출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그의 모든 자손에게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우리의  
조상이다.

#### 함께 이야기함

“요셉, 탁월한 모범”을 개인적으로나  
가족 단위로 읽은 다음 가족 경전 연구  
시간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1. 이 글에서는 “요셉의 생애에 관한  
기사가 구세주의 생애에 관한 훌륭한  
예표”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예표를 주실까? 이런  
것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

2. 요셉은 그의 형들과 보디발에  
의하여 큰 고통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간직하였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나?

3. 형들이 그런 못된 일을 했는데도  
요셉은 그들을 선선히 용서해 주었다.  
우리 가정에서 이와 같은 겸손과  
사랑을 고무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그리스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4. 우리는 또 요셉의 다른 어떤  
특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구세주를  
모방하려는 그의 모범을 더 잘 따를 수  
있나?

#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티 듀크

---

만일, 내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

말씀드리다면 본질적으로 나는

---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

오 나이다 산에서 엘마는 빈곤에 찌들린 조램인들에게 행한 위대한 설교에서 신앙과 순종의 원리를 가르쳤다. 그리고는 예배 문제로 돌아가서 지노스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엠울레크는 엘마의 간증에 자신의 간증을 덧붙이기 위하여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지노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훈계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능하사 너희를 구하실 분이라.

“스스로 겸손하며 쉬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의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 들에 있는 가축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라.”(엘 34 : 17-27)

나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지녔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했다.

나는 가끔 나의 사회학 학생들과 조지 허버트 미드의 저서에 관하여 토론했는데, 그는 인간의 품행을 굉장히 잘 분석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고 과정에 대한 그의 설명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마도 그 설명의 단순성 때문일 것이다. 미드에 의하면 생각은 주로 우리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이다. “우리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과 똑같이 자신에게도

중요하다.”(마음, 자아, 사회. 시카고, 시카고 대학 신문, 1934년 62페이지)

이것은 내 생각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내 입술은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듣지 않는다. 그러나 끊임없이,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릴 시간이다.

테이브(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들)가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가 있는 미네아폴리스가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 이제 가야겠다. 안 그러면 직장에 늦겠다. 어제 차에 기름을 넣지 않았구나. 어쩐편 오늘 직장까지 갈 기름이 없을지 모르겠다. 학교에 가는 길에 멈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만일 그런 생각이 우리 자신과의 대화라면 왜 그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지 않는가? 그리고 기도는 생각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점이 많다.

내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다면 내 생각이 기도가 될 것이다. 내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엠울레크가 말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나는 내 마음이 좀더 자주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주시는, 언제나 함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셨다. 내 생각을 아버지를 향하여 돌릴 때 뜻깊고 더 거룩해진다.

“오늘 데이브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 오늘 데이브를 지켜 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제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게 해주신 것과 그 당신을 기꺼이 섬기려는 착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늦겠습니다.”

물론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말하고 나 자신에게 작용하는 상태로 다시 이끌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주님이 가까이 계심과 성신의 영향 알게 된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귀중한 순간에 또 우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 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숭배하며, 내 마음이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가는 동안 그분에 대한 감사가 매일 깊어진다. \*

# 꿈에 경고받음

데이빗 제이 하디

1979년 말부터 1980년 초까지의 겨울은 우리 지역에서는 예년보다 훨씬 더 혹독해서 산간 지방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내 친구의 집 지붕이 무너졌다. 지붕 전체와 콘크리트 기초까지 전부 다 다시 지어야 했으며,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집은 근처 협곡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강둑을 따라 아름답고 소나무가 들어서 있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스러웠으므로 이 지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아름다운 경치와 그곳에서 느끼는 평화로 인하여 흔히 하듯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작업하기로 했다. 나의 형제인 러스티가 내 일을 도왔으며, 우리는 4월 말에 그곳에 갈 수 있을 만큼 눈이 녹자마자 그 무너진 집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매일 나의 어린 아들 케니를 데려가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만 2살 반으로서 아빠와 함께 일터로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는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탐험했다. 그는 새로 발견한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에 특히 다람쥐, 얼룩 다람쥐, 새 등에 반했으며, 몇 시간씩 개천가에서 급류에 돌맹이와 나뭇 조각을 물에 던지며 놀았다. 때로는 소나무 그늘에 몸을 웅크리고 낮잠을 잤다.

이런 날이 계속되었다. 그는 여러 번 넘어져서 이런 모험을 하는 동안 긁히는 상처를 입었으나 그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 주러 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는 이런 새 환경에 좀더 친숙해짐에 따라 자신과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자라났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작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특히 가까이 있는 개천이 눈이 녹아서 점점 더 깊어지고 물살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 조심했다. 그는 놀랄 만큼 잘 판단해서 물에 빠질 만큼 가까이

가는 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매일 개천 덕분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갖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케니를 작업장으로 데려간 지 4~5주 되었을 때, 무서운 꿈을 꾸었다. 그가 급류에 떨어져 빠져 죽는 꿈을 꾸 후 찬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그 꿈이 너무나 현실같고 무서워서 나는 내가 침대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내 마음속에 거듭해서 다시 나타나는 그 무서운 장면을 깊이 생각하며 밤을 새웠다. 나는 분명히 이 꿈은 무시하면 안될 경고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어린 케니에게 다시는 나와 함께 그 집으로 작업하는 데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케니가 아빠와 함께 산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 염려스러웠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내가 꿈꾼 것과 느낌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더 이상 우리 아들을 산에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도 아들이 어떻게 그 실망을 이길 것인지 염려했다.

케니는 그날 아침도 평상시처럼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 침실로 와서 내 무릎에 앉았으며, 나는 그가 신발과 양말을 신는 것을 도와 주며 그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그가 “아빠, 오늘은 함께 작업장에 갈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서 “왜?”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 강에 빠질거예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케니도 그날 밤 똑같은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보호하시고 그가 이 생에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영감을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화평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 시 피터슨 : 전형적인 특별한 말일성도

제니 다카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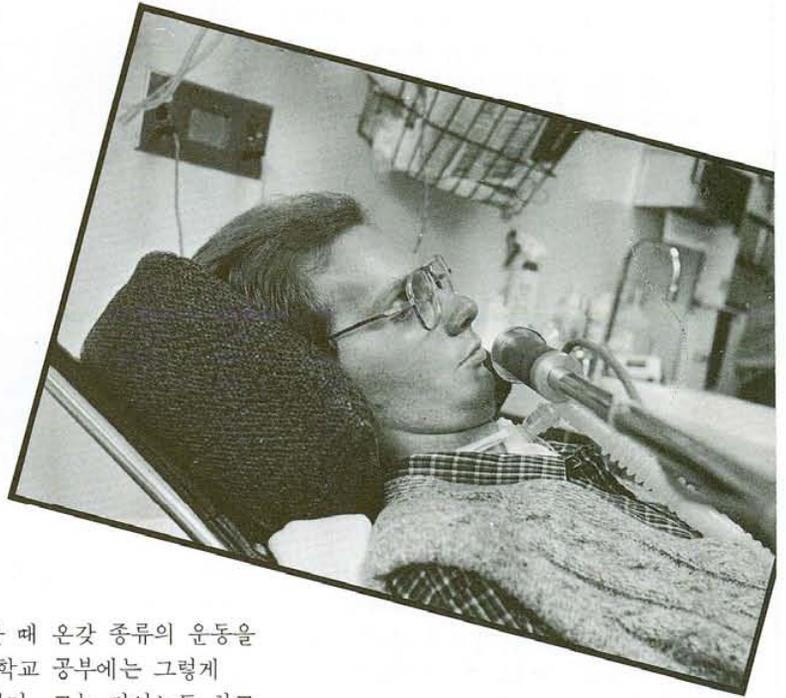
**캐** 캐나다의 앨버타주 에드먼튼에 사는 프랭크 시벨 (시) 피터슨은 전형적인 젊은 말일성도이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 연구원에 참석하고, 소속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가정 복음 교육을 수행하며, 야구 시합 구경도 가고, 음악회, 영화관에도 간다. 그의 키는 거의 2미터나 되며,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하고 날씬하며 단정하다. 그는 와드 소프트볼 코우치이기도 하다. 이보다 더 전형적일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가 전형적일지라도 아무도 그가 평균 수준이라고 탓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어려운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슈퍼스타이다. 그의 재능은 사람과의 인간 관계의 분야에 있으며, 그는 자기 재능을 숨기지 않는다.

러스 브레일리는 이렇게 말한다. “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또 가장 믿음직한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입니다. 단, 나는 그의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남자 소프트볼 주장인 클렌 헛슨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러스가 하는 말을 나도 압니다. 시가 처음 우리 코우치가 되었을 때는 그의 어머니가 늘 함께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시는 완전히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지는 않지만, 그는 1975년 3월 1일 이후로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늘 그를 따라다니며 보통은 그의 어머니인 아니타 베진먼이 같이 다닌다. 그는 당시 높은 체조봉에서 떨어졌다. 그는 단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입술로 말을 표시하고 미소짓는 것만을 할 수 있다.

시는 그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전형적인 말일성도 10대 소년이었다. 그는 여섯 자녀의 장남으로서 거의 만



17세가 다 되었을 때 온갖 종류의 운동을 다 좋아했으며, 학교 공부에는 그렇게 열심을 쏟지 않았다. 그는 피아노도 치고 남동생들과 여동생들 그리고 어머니를 놀리기도 했다. 그의 한 가지 큰 목표는 만 19세가 되기 무섭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다.

시는 한 순간에 완전히 건강한 활동 상태로부터 완전한 전신 마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는 완전히 동작을 상실했다. 숨쉬거나 말하거나 먹을 수도 없었다. 그는 하루 24시간 호흡기에 매달려 있었다.

대개 사람들은 갑자기 불구가 되면 종국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전에 거부, 분노, 반감, 심지어는 악감정까지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시는 분노, 절망, 무력감이나 낭패한 상태를 일체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담당 의료진은 감탄했다.

그가 폐렴에 걸렸을 때 어머니는 이전에 시의 감독이며 친했던 로버트 에스 페터슨에게 축복을 부탁했다. 페터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겪은 사고에는 틀림없이 중요한 목적이 있느니라. 그대는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구가 되게 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그대의 임무가 되게 되어 있느니라. 그대는 지상에 오기 전에 그것에 동의했으며, 그것을 잘 성취하면 영원히 매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리게 될 것이니라.”

시의 어머니도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았다. 시는 이렇게 회상한다. “어머니는 내가 다시 걷거나 말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많이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엄마.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했으며, 이제는 다르게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사고를 당한 그 다음날 내 방으로 내려가면서 침대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왜?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라고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으로

그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성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책상에서 연필과 종이를 집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 생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을 어떻게 대하며,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만 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하여 준비하고, 해의 왕국에서의 과제와 엄청난 성품과 힘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시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에 따라 시의 생애에 있어서 이 시기는 흥분과 도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가 발전시킨 재능은 어떤 것도 잃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재능은 그가 다른 것을 개발하는 동안 보류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는 단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로만 인하여 수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 그는 또 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때 그것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는 매일 그의 병실에 와서 몇 시간씩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사랑과 지지를 보인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이 계속해서 돌봐 준다. 그의 소속 스테이크 초등학교에서는 그의 휠체어를 유계 차량에 들어 올리기 위한 수압식 승강기를 사 주기 위하여 200여 만원을 모금했다. 에드먼튼 싱글즈 워드에서는 뮤지컬 코메디를 하나 만들었으며, 재능이 많은 그의 누이 4사람은 개인용 컴퓨터를 살 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음악 프로그램을 공연했다.

지방 라디오 방송국의 뉴스 방송을 하는 밥 레이턴 형제는 시에 관하여 2부로 된 다큐멘타리를 만들었다. 그 방송국에서는 똑같은 다큐멘타리를 절대로 2번 이상 방송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시 피터슨 이야기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방송해야 했다. 마침내 그 다큐멘타리의 음향 효과를 사진 슬라이드와 합쳐서 시청각 방송물을 만들어 냈다. 레이턴 형제는 요청에 의하여 이것을 노년의 모임, 학교, 지역 사회 조직에서 여러 번 보여 주었다. 청중의 편지와 특히 학생들의 편지는 시가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데려오는 도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어떤 소녀는 이렇게 썼다. "당신의 신앙과 당신이 그 사고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 받은 선물 가운데 어떤 것은 처음에는 전혀 달갑지 않은 것도 있었다. 1977년 어느 날, 듀안 심슨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시의 병실로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끄고는 이렇게 주장했다. "시, 왜 인생을 이렇게 허송하고 있어? 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네 두뇌는 전혀 손상받지 않았어. 왜 머리를 사용하지 않지?"

시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러나 듀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널 도와 주려고 왔다." 그는 자기가 시의 가정 교사로 임명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때부터 시의

생활은 극적으로 변했다. "내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듀안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는 그의 고등학교 공부를 끝내기 위하여 노력했다. 지금 그는 대학에 등록해서 사회 사업 학위를 얻으려 계획하고 있다.

그런 상태로 어떻게 공부할까?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가정 교사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는 가정 교사가 질문을 읽어 준다. 시는 "입 모양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시는 일체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교사가 그의 입술을 보고 답을 적어서 통신 학교에 보내서 학점을 받게 한다. 그 방식은 느리고 따분하지만 시는 이렇게 농담한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학점을 더 잘 받고 있습니다."

시는 품위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 한편 또 비이기적으로 주는 것도 배웠다. 그는 불구이거나 난관에 봉착하여 고심하는 실망하고 낙담한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용기를 얻고 돌아갔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에 깊이 동정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쳐 교회로 데려오거나 다시

활동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시가 살고 있는 병원의 한 간호원은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시와 새벽 3시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느낌을 명확히 정의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선교사와 공부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걸 원했습니다. 나는 1983년 8월에 침례받았습니다.”

데이빗 맥타비쉬도 시가 인생에 영향을 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비활동으로부터 돌아올 때 처음에는 시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받아들이는 모범과 신앙 및 그와의 수많은 토론은 나와 교회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겁내지 않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자유도 주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머리의 할머니인 지 본부세 여사는 시의 물리 치료사이며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나는 시가 십대 청소년으로부터 지금의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시는 나의 친구입니다. 병원에서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은 시뿐입니다. 우리는 온갖 것 즉 나의 젊음 시절, 음악, 재정, 정치, 가족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면 그들은 ‘시는 어때요?’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줍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성과 건강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마비 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시의 병실에 예고없이 들려보면, 그가 자기 컴퓨터를 갖고 일하거나 휴대폰을 쓰고 있거나 수많은 카세트를 틀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카세트 케이스에는 표준 경전(그는 표준 경전을 최소 4번은 들었다.), 대회 말씀, 녹음된 책, 학교 수업, 태버나클 합창단으로부터 클래식, 팝송까지 온갖 종류의 음악이 있다.

시는 1978년에 앨버타 재활 위원회가 그를 위하여 설치해 준 전자 제어 장치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커 넓어졌다.

그는 아랫 입술을 통제 지렛대에 대고

그 장치에 연결된 것은 무엇이든지 켜거나 끌 수 있다. 그것으로 간호원까지 부를 수 있다. 지금은 개조한 퍼스널 컴퓨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전자 제어 장치와 연결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10년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그는 “이제 이것이 전에는 불가능했던 수많은 것을 열어 줍니다. 공부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관한 책을 한 권 쓸 것입니다. 또 더 훈련받은 뒤 작곡도 좀 할 것입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시의 힘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복음으로부터 연유된다. 그는 1977년 11월에 장로가 되었다. 1982년 6월 22일에는 앨버타 성전까지 48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옛날에 시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던 비 에이 우드 성전장이 그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그를 도와 주었다. 시는 자신의 마비 상태를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불편과 제약 이외에도 모든 부작용도 참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언제나 호흡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의 혈액 가스가 균형을 잃어 심한 환각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호흡기가 고장났을 때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는 심장 마비, 여러 번의 폐렴, 신장 결석, 위궤양 및 졸도를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유모어 감각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의 얼굴은 늘 미소짓고 있으며, 그는 짓궂은 장난도 좋아한다. 한번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하듯이 병원으로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두 명의 병원 수위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시의 병실 근처에 앉아 있었고, 병실 문은 닫혀 있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의 방은 어두웠고, 그에게 흰 천이 씌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가슴이 떨렸다. 다가가서 흰 천을 잡아당겼다. 시는 웃고 있었다. 그러자 수위들이 들어왔는데 그들도 웃고 있었다.

시는 가족 전체에게 영감을 준다. 그의 막내 동생인 바비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다섯 살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오빠가 있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활 방식의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만일 오빠가

이것에 대하여 소란을 일으킨다면 짐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를 좀더 낮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가 다시 나아지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시의 부친인 프랭크 피터슨 박사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그가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은 불행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다른 것은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나는 아들놈이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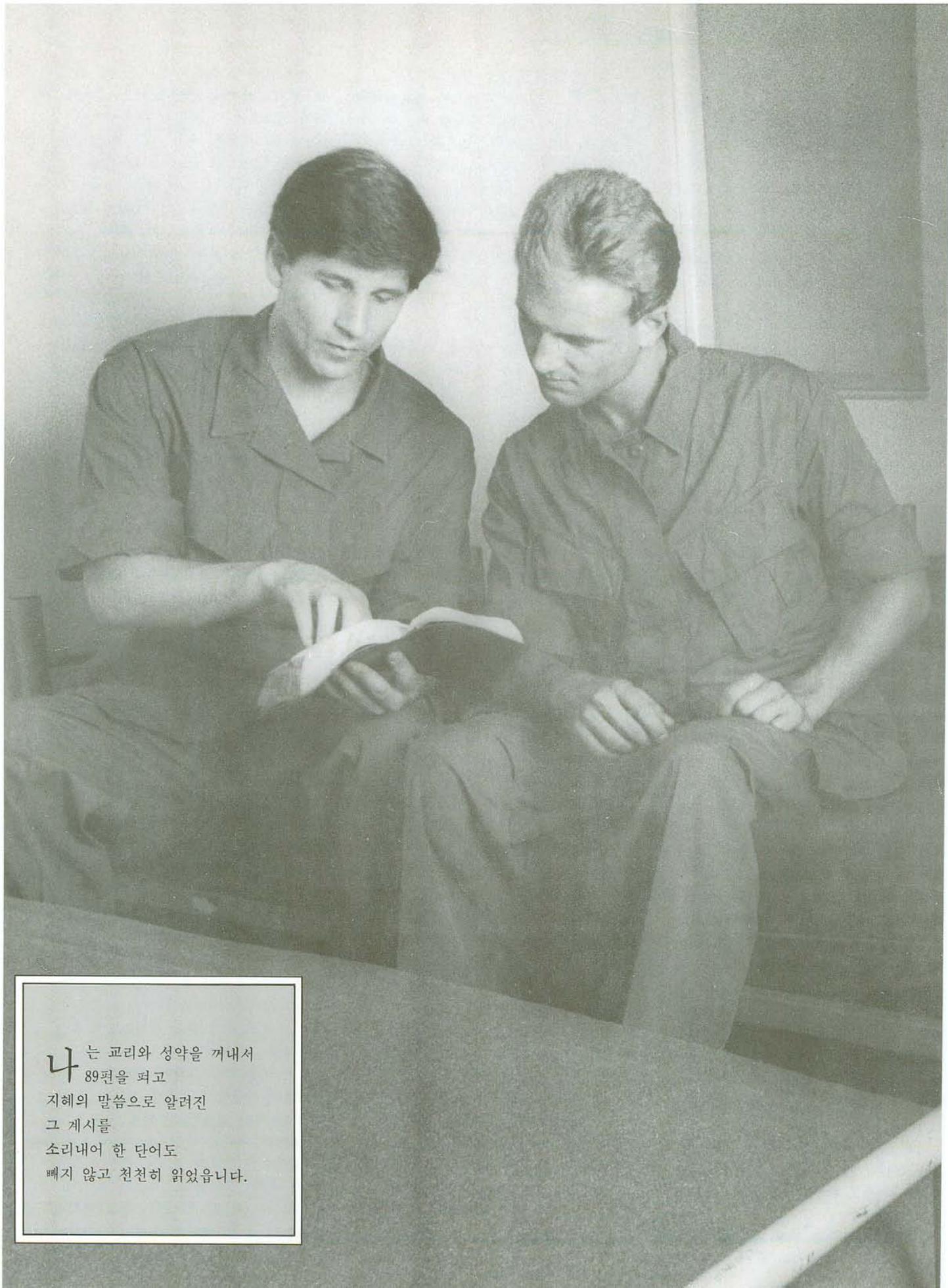
시는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자주 간증한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입술을 보고 그의 생각을 호흡기의 리드미컬한 소리에 맞춰 이야기한다.

“이 지상 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시험받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에 합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면에서든 시험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물도 될 수 있고 디딤돌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회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내가 갖고 있는 신권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너무나 많이 도와 주는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것과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받은 시련이 너무나 뚜렷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받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시련도 내가 받은 시련만큼이나 어렵지만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어 그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게 되도록 기원합니다.”

그의 마음은 기도와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 간다. 그는 뒤로 누워 있지만 거인이다. 시 피터슨은 전형적인 말일성도 청년이면서도 특별한 인간이다.\*



나는 교리와 성약을 꺼내서  
89편을 펴고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그 계시를  
소리내어 한 단어도  
빼지 않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 너무 늦는 법은 절대 없다

존 케이 카먹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교리와 성약 58편 42, 43절을 펴고  
회개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를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날은 봉급날이었으며, 대한민국 서울 소재 미 8군 본부에서였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낮에 근무했으므로 저녁에는 독서하고 편지쓰고, 나 자신을 위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봉급날은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분의 현금을 일부 군인들이 현명하지 못하게 클럽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저녁에 술기운이 오른 것이 분명한 군인 세 사람이 취침 시간이 될 무렵 막사로 시끄럽게 들어섰습니다.

이차 대전 이전에 일본 점령군이 지은 우리의 그 빈약한 군인 막사의 화평과 고요가 이 군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 시끄러운 침입자들로부터 고개를 돌렸고, 그 분위기가 바뀐 것을 못 본 체 하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서 평화롭게 읽고 싶어하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잘 생긴 한 사람이 나를 그 무리에 끼우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 침대로 왔습니다. 그는 “뭘 읽나?”라고 했습니다.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전기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본 순간, 나는 그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유대 관계가 긴밀한 한국 서울 지부에 소속된 엘마 앤더슨(가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엘마도 나를 알아보았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매우 당황하여 놀라서 가려고 하다가 내 침대 위로 넘어졌습니다. 나는

성도의 빛/1986년 2-3월호

“엘마, 몇 달 전에 우리 지부 모임에서 너를 보았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 생각나네.”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깊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교리와 성약을 아나? 지혜의 말씀을 읽어 줄래?”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리와 성약을 꺼내서 89편을 펴고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그 계시를 소리내어 한 단어도 빠지 않고 천천히 읽었으며, 거기에는 “독한 음로는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요.”(교성 89:7)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보다 더 나쁜 짓도 했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셔. 이제 나는 못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을 막았습니다. “엘마, 너는 아직 선교사로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나?”

“내가 한 짓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하면 안될 것은 거의 다 했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나는 그가 온갖 짓을 다 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동료들이 밤새도록 부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엘마의 행동 방식은 그의 친구들과 너무나 흡사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우리 교회 회원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심야의 외출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엘마는 다음 주에 집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했을 만한 죄를 알고, 또 만일 없으면 우리가 모두 길을 잃게 될 복음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신있게 “아니야, 너는 갈 수 있어. 그러나 헛지는 않을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58편 42, 43절을 펴고 회개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를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즉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감독에게 가도록 충고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우리가 그날 밤에 시작한 회개의 과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또 나는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성적인 범법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를 버리기로 다짐하고, 두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시간이 절릴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가 자기 죄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지 알도록 엘마서 39장을 읽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가 회개의 일부로서 남은 평생 동안 자기 이웃에게 봉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와 그의 자비와 대속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죄가 심각하지만 그가 버려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으며, 구세주의 위대한 사명이 없으면 버림받은 것이다.”라는 위안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깨끗해지려면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한다.”

“내일은 토요일이야. 엘마, 우리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내자. 그리고 일요일에 나와 함께 교회 예배에 가고 싶으면 아침 8시경에 여기 오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동안 나의 막사에 와 있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일요일에 그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으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잔치를 즐겼으며, 엘마는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는 표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로부터 쉬는 우리의 훌륭한 날이 끝나자 그는 자기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월요일에 그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천항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군용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또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에게로 떠났습니다. 나는 가끔 그가 집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친애하는 존에게

“아마 나를 기억하겠지. 우리가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끝없는 영향을 미칠거야. 나는 가끔 그날 밤 어떻게 너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만일 여러분이 돌아와서  
주님의 사업을 할 자격을  
얻고 싶다면  
결코 너무 늦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우리의 대화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했어.

“나는 최선의 생활 방식인 그 힘든 방식을 배웠으며, 현재는 말일성도 생활에 대단히 행복하단다. 나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자마자 감독과 이야기했다. 몇 개월 뒤 휴 비 브라운 장로(십이사도 평의회)와 선교사 접견을 했으며, 그는 내가 과거의 과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나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 그 접견은 나의 편에서는 긍정적인 결정으로 끝났다. 나는 토요일에 선교사 부름을 받고 곧 선교사 훈련원에 갔다. 나는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이 부름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나는 그날 밤 네가 격려해 주고 충고해 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비록 그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나 네가 한 말을 기억한다. 어쩌면 우리가 만난 것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나는 너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일생 동안의 최고의 행운이 함께 하기 바란다.

“어떻게 지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편지해 주기 바란다. 네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의 형제”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엘마가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언제나 인간 즉 그의 아들과 딸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한 순간의 순수한 기쁨이 내가 받은 보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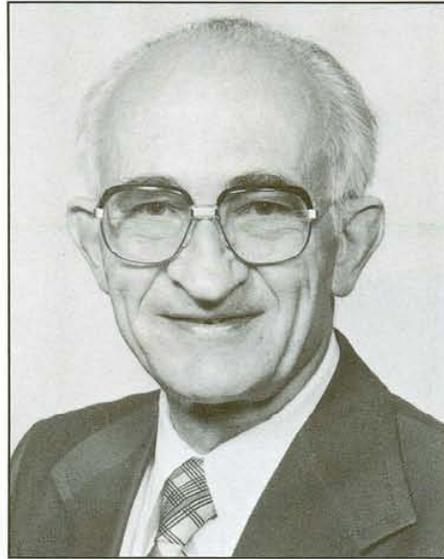
그 다음(마지막으로) 엘마를 본 것은 내가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엘마가 대기실에 들어왔으며, 우리는 옛 전우로서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친구로서 포옹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자신의 성공적인 선교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으나 그는 복음 선교사로서의 봉사를 완수함으로써 자부심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실상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돌아와서 주님의 사업을 할 자격을 얻고 싶다면 결코 너무 늦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정리해야 할 고통스러운 빛이 있어서 자신이 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고백과 보상과 인내와 평생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영적인 암흑을 가져 오는 행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 주는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제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성 1:31-32)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일은 힘들 수도 있고, 만일 극복해야 할 심각한 죄가 있다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죄지었으며, 주님을 믿는 신앙을 얻고 죄를 회개하여 침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의 그런 기쁜 순간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상해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부드럽게 가져다 줄 축복의 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은 또 여러분의 생애를 기쁨으로 채워 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기쁨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봉사하러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서 그릇된 자존심을 몰아 내고 지금 당장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도록 감독이나 지부장과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생애에서의 화평과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교성 59:23)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의식 및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희망을 잃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는 절대로 너무 늦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전서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 21 : 24)라는 계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그런 보복적인 율법을  
주셨을까요 ?



어멜 제이 모턴,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렉스버그 아이다호 동 스테이크  
축복사.

**재** 미있는 사실로서, 이 구절은 복수나  
보복을 승인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이 구절은 “같은 것에 대하여 같은  
것으로”라는 의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개념은 바울이 잘 선택한 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 : 7)  
구약 시대에 “눈은 눈으로”라는 개념은  
사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여 관련된 처벌은  
어떤 것이든 그 고소하는 사람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사의  
지침인 원리로서 주어졌습니다.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근본 원리는 회복 또는 “악이 악으로  
육욕은 육욕적인 것으로……선은 선으로  
의로움은

의로움으로……뇌물아감”이었습니다. (엘  
41 : 13) 또는 구세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 : 2)

최후의 심판에서는 눈에 대하여  
눈으로, 이는 이로, 자비는 자비로,  
친절은 친절로, 또 중요한 것으로서,  
악한 생활에는 다음에 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인용하신 다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 : 38-39)  
이때 주님은 당신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룩한 공의의 원리를 철회하고  
계시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경전 말씀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지닌 사람만  
재판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눈은  
눈으로”의 원리를 사람이 언젠가  
부상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보복해도  
좋다는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세 율법의  
일부로서 구체적으로 이런 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 19 : 18) 그러므로 그들은  
복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보복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원한을 품는  
것도 일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복수는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신 32 : 35, 시  
94 : 1 참조)

그러므로 구세주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며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치실 때 사실은 단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원리를 회복하고 그 원리로부터  
멀어진 세상적인 가르침의 인습을  
없애려고 하셨을 따름입니다. \*

# 둘이 함께 걸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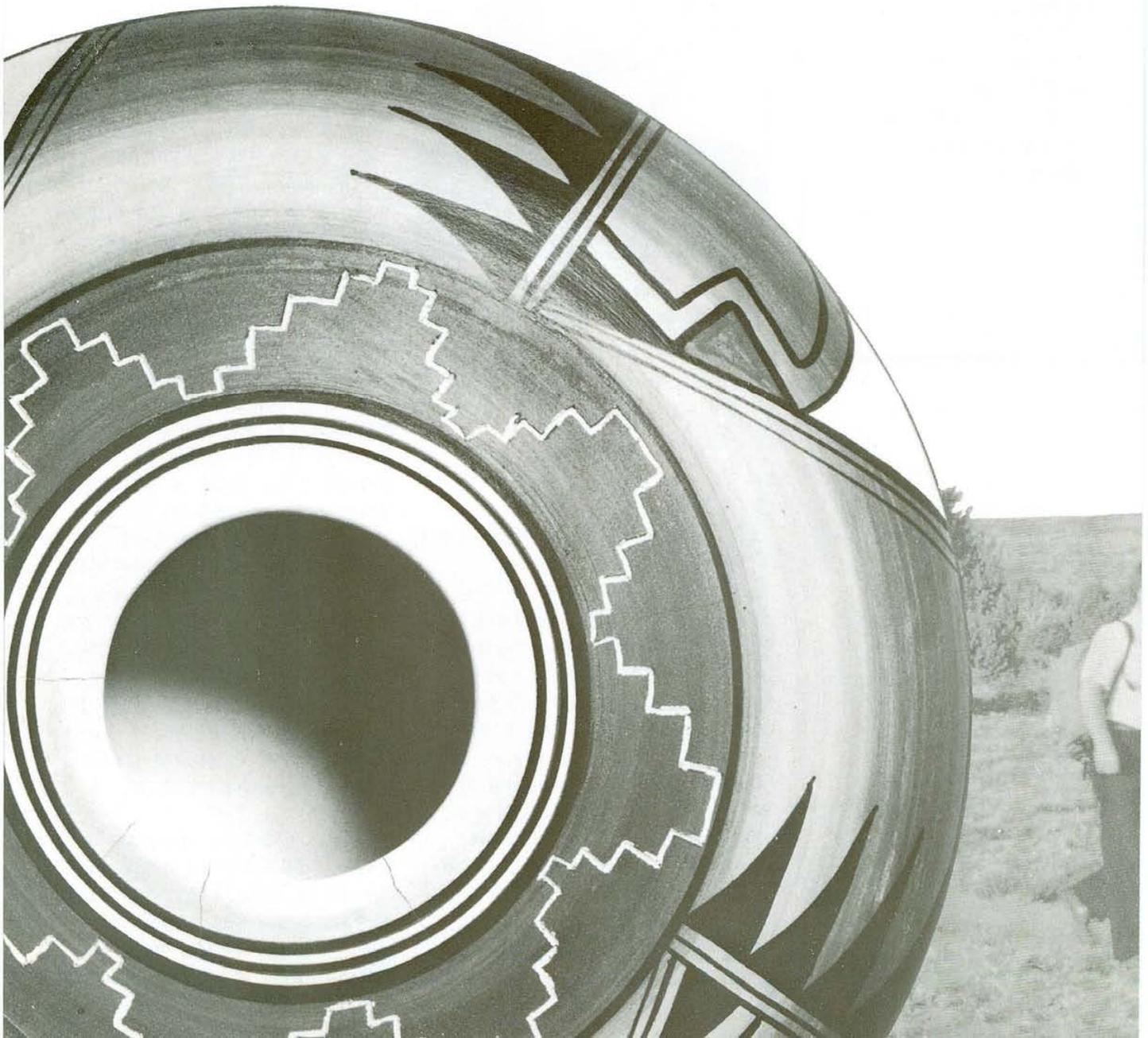
웨인 비 린

오 후 내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사막의 붉은 모래가 꼭  
닫은 자동차 창문을 뚫고 들어와 차내의

모든 것 위에 가라앉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마지막 1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해가 급히 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마지막으로 밝은 빛을 던지는 순간, 그

태양은 맹렬하게 몰려드는 구름  
니머로부터 근처의 꼭대기가 평평한  
언덕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숨막히는 장관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은  
호박색, 핑크색, 오렌지색의 파스텔  
그림자를 반사했습니다. 가는 은빛  
기둥이 구름의 틈 사이로 지상으로 뚫고



내려오며 하늘로부터 멋진 통로를 만들어  
냈습니다.

나는 그렇게 수없이 대조되는 멋진  
모습을 보인 그 사막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을 결코 그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꾸불꾸불한 진흙 길 밑으로 한 작은  
인디언 집이 길 옆에 있는 것을 지나 내  
앞에 말일성도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교회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이었지만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장로들의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장로들의  
“지디”(트럭)가 주차한 것과 그 트레일러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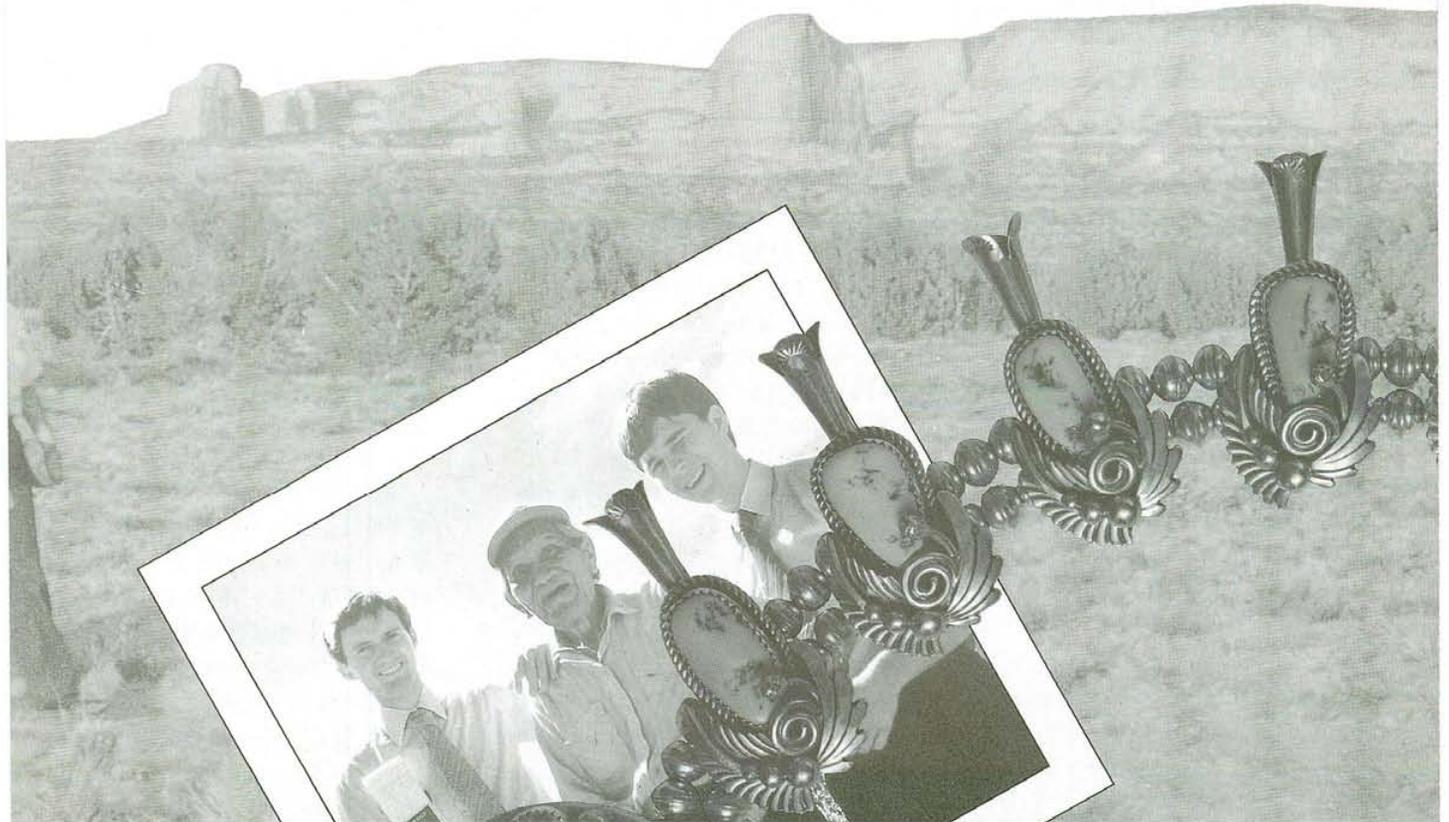
내가 그들의 이동식 주택 트레일러  
옆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밑에서 거의  
끓어 죽게 된 것같이 보이는 개가 나와서  
짓었는데, 처음에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그 다음에는 꼬리를 흔들며 교착된  
감정을 보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짓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선교부장이 교착된  
감정으로 영접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야. 장로들은 그들의 이동식 주택  
트레일러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만나는 것이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

이때 네일러 장로와 제슨 장로가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즉시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네일러 장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부장님,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모스 싱거라고  
하는 이 노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과  
두 명의 매우 총명한 손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손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회원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처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신,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가르친 후 그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듣고 우리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은 그 모든 이야기와 같은 종류였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79세이며, 어릴 때(약 15세 때) 인디안의 민간 요법의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증조부로부터 배웠으며, 아주 먼 옛날 나바호 인디안의 신앙에 관하여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옛날 전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많은 다른 종교의 조직을 얼마나 연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물론 방식’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모두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록 나바호 종교가 최근에 변화했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은 고대의 나바호인들이 가르친 것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하여, 또 지구가 어떻게 가까운 장래에 불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 행복한 장소가 되고, 의로운 자에게 문제가 없는 장소가 될 것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이 그의 주변에서 노래하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천사들이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었으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노래의 일부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한 오늘날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살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히스 키 나아쉬이’ 즉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전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복음을 다시 가져 올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리키며, ‘여러분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네일러 장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모두 물론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젠슨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사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칠 뻔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먼지나는 길을 두 사람씩 짝지어 걸은 다른 장로들을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지부를 와드로 만들고, 곧 레이맨인 스테이크를 만들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나와 함께 했던 여러분의 동료인 장로 두 사람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겠는데, 그들이 함께 루카츠키이 옆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어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그들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사 가운데 멋진 나바호 소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청중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으나 신앙과 깊고 진실한 간증에 의하여 격려받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교회가 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젊은 장로 두 사람이 깊이 패인 신장길을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 진흙과 눈을 뚫고 나머지 40리 길을 걸었는데, 그것은 어떤 남자와 그의 손자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인하여 침례받은 회원인 이 젊은이가 회중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곧 선교사로 나가서 동반자와 함께 먼 시골길이나 도시의 도로를 걸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집과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선교 사업의 그 큰 모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부장님, 저는 전초더미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리는 것이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인디안 보호 구역 주위로 길을 찾은 것만 해도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어와 새로운 땅과 새로운 백성과 그들의 방식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좀 겁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런 경험을 그 어느 것보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 사람 다 컴퓨터 장로를 알지요? 나는 얼마 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으며,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부장님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가정의 밤을 한 다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소녀가 트럭으로 와서 나에게 염소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마 그 염소가 먹기에는 너무 작고 그것을 둘 장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부장님께서는 염소를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소를 주는 것은 젊은 여인이 결혼 신청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염려마십시오. 저로서는 전혀 매력 없었습니다.’

“굉장한 모험에 관하여 내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형제 여러분, 염소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주의하십시오!

“반면에 시골에서 또는 인디안 보호 구역에서 큰 도시로 처음 나오는 장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새 경험은 재미있고 도전적인 것입니다. 데스치니 장로가 생각납니까?”

“물론 그가 생각납니다. 그는 나바호 장로로서 검은 눈에 검은 곱슬 머리에 미소를 함박 띠어,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는 훌륭한 장로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며, 그는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내가 그로부터 받은 편지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낸 첫날과 이튿날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 훈련원에 간 나바호 말을 하는 선교사는





저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첫날에는 내 아파트와 선교사 교실을 찾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날에는 늦게 일어나서 모두 벌써 수업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어 샤워를 하고 나도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교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건물과 복도를 살살이 뒤지며 다녔으나 내 교실을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냥 포기하고 아파트로 돌아가서 동반자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파트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거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 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있던 건물 안으로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혼자서 내가 여자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그곳을 뛰어 나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서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그는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몇 사람 침례주었으며, 침례받을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습니다. 선교부장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더 말씀드릴 소식이 별로

없으므로 여기에서 끝내고 일을 좀더 하였습니다. 안녕히 제정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곧 뵙겠습니다. ....“테스치니 장로”

“나는 바로 지난 주에 이 이야기를 새 장로 몇 사람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나는 그들을 첫 임지로 보내기 위하여 차를 태워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열자리에 있는 바비 양지 장로를 보고 ‘혹시 테스치니 장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열열한 미소가 떠오르더니 눈에 눈물이 그득해졌습니다. 그는 ‘선교부장님, 그가 바로 저를 찾아와서 가르치고 침례준 사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에서 이 교회 회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느낀 그 감동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바비는 교회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는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잘 생각하고 맑은 눈에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서 그의 간증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비는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안되어 처음으로 침례를 주었는데,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침례주었고,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끝내면서 가방에 물건을

넣으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가르칠 시간 약속이 되어 있었고 나도 방문할 곳이 또 있었습니다. 헉크스 자매와 매트슨 자매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마을로 들어갈 때는 이미 해가 진 지 몇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으므로 들러서 인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를 열렬하게 환영하고, “선교부장님, 오늘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워드 선교 책임자가 일주일 내내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오늘밤 교회에서 있는 어떤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도록 절대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날 정도였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밖에 차가 몇 대 서 있었으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들어가서 불이 켜진 것을 보았고, 복도 끝의 어느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서 문을 노크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게 진행된 후 갑자기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에는 사람들이 꽤 차 있었으며, 앞줄에서 얼굴에 미소를 머고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가르쳤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더 이상 말문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옛날에 “각동 자처로 들쳐...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1-2)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 젊은이로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기쁨과 선교사로 봉사하는 “굉장한 모험”을 알면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부름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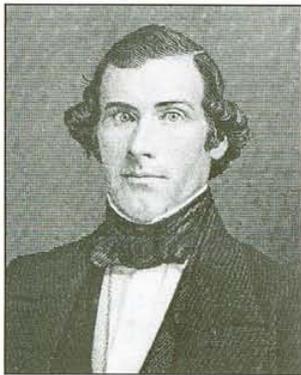
# 첫 시현의 확인 증거

밀턴 브이 백만 이세

이 기사는 요셉이 그들에게 직접 알려 주었다고 말하는 요셉 스미스와 동연배의 사람들이 설명하는 첫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①

1834년 즉 폰티악(미쉬간) 지부를 조직한 지 1년 후,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목격자 몇 사람이 그 지부 회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경험에 관하여 힘있게 확인했다. 에드워드 스티븐슨은 이 모임에 참석한 개종자로서 예언자의 간증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회상했다. “예언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 및 그가 이 두 분과 대화한 것에 관하여 굉장히 힘주어 간증했다. 나는 이때 나타난 이런 권세를 이전에 한번도 느낀 적이 없었다.”②

그 외에도 요셉 스미스의 가까운 친지였거나 그와 면담해 본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가 그 신성한 경험에 관하여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선언했다. 이 동시대 사람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인지 밝히고,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간증했다.



울슨 프랫

## 울슨 프랫의 기사

자신의 설교와 글에서 그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더 자주 이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언급했을 초기 개종자는 바로 울슨 프랫이었다. 1830년대의 10년 전체와 1839년부터 40년까지의 겨울 동안 울슨 프랫은 예언자의 가장 충실한 학생이었다.

그 19세된 개종자는 1830년 9월에 침례받은 직후 예언자를 만나기 위하여 320킬로미터 이상이나 여행하였으며, 예언자는 그해 12월에 그를 장로로 성임했다. 요셉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이사할 때 울슨 프랫도 따라갔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동안 거의 2개월간 예언자의 집에 머물며 그와 함께 일했다. 그는 예언자의 학교의 초기 회원이었으며, 1833년에는 예언자가 회복된 신앙의 역사와 교리를 학교에 가르쳐 주는 것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1830년대 초에는 요셉과 함께 미주리주 서부로 여행하고, 1835년에는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울슨 프랫과 요셉 스미스의 접촉은 1839년과 184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1839년 늦은 봄과 초여름에는 요셉 스미스의 숙소로부터 멀지 않은 미시시피강 옆에 살았다. 그해 말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예언자와 함께 잠깐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로 계속해서 여행하여 거기에서 약 9개월간 전도했다. “200명 이상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놀라운 시현”이라는 제목이 붙은 팜플렛을 출판했다.③

이 선교사 팜플렛은 1840년 가을에 출판되었으며, 첫 시현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인쇄해서 담고 있었다.④ 여기에는 요셉 스미스가 초기에 받은 여러 가지 시현, 즉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신 것으로부터 초기에는 모로나이가 나타난 것 및 몰몬경의 세 목격자와 관련된 경험이 담겨 있었다. 프랫 장로가 이 책을 1841년에 두 번 재인쇄했으며, 1842년에 다시 인쇄했다. (세번째 미국판이라고 했음) 미국판에서는 신권 회복의 기사까지 포함하여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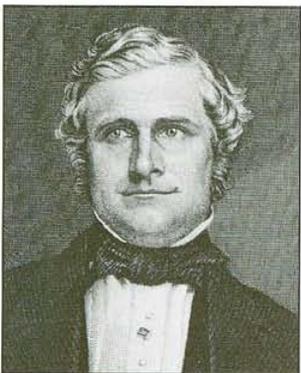
요셉 스미스의 역사 기록과 이 팜플렛을 비교해 보면 예언자의 역사에 담겨 있는 중요한 개념이 대부분 다(특히 1838년 기사) 프랫 장로의 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랫의 팜플렛에는 직접적인 인용이 없으며, 문체가 요셉이 1840년 이전에 쓴 것과 다른 것을 보면 울슨 프랫은 요셉의 저술보다는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에 의거하여 그의 역사를 쓴 것이 분명하다.

1859년에 행한 설교에서 첫 시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프랫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직접 말한 그대로 그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가 자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⑤ 결과적으로, 울슨 프랫은 이 팜플렛을 출판함으로써 요셉 스미스의 초기의 여러 가지 시현을 훌륭하게 요약해서 세상에 전했을 뿐 아니라 그 참됨에 대하여 간증한 것이다.

다음 내용은 “놀라운 시현” 1840년 판으로부터 선정된 것이다. 요셉 스미스의 기록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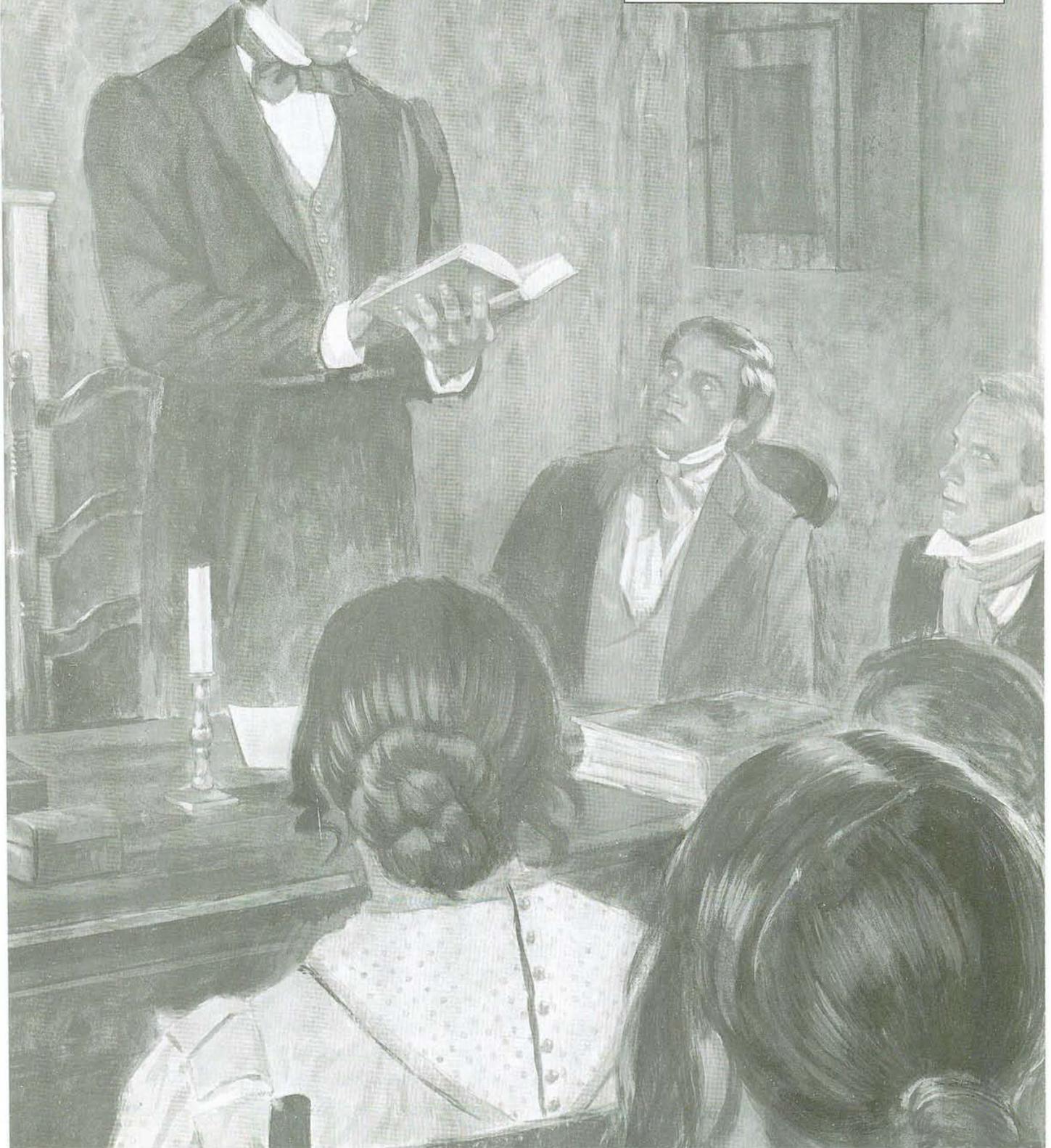


울슨 하이드



존 테일러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의 학교에서 회복된 신앙의 교리를 나타내 보였다.



말씀과 비슷한 개념은 사체로 다시 썼으며, 각각의 말씀 뒤에는 괄호를 적어 요셉이 그 내용을 직접 기록한 대략적인 날짜가 적혀 있다. 이 기사들 사이에 비교적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마도 요셉이 한번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올슨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거나 문학적으로 첨가했기 때문일 것이다.⑥

다음과 같은 중요한 발견을 한 요셉 스미스 이세는 서기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주 윈드서군 샬론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가 만 1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가족과 함께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사갔다. (1838) 그곳은 만체스터 마을 뒷편으로서, 그가 약 11년간 거주한 곳 근처였다. 그의 직업은 생계를 잇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는 일이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일을 하면서 보냈다. 그가 학문과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기회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교육이라는 것은 두세 가지 일반 학과를 조금 아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으며, 쓰는 것은 불완전했다. 또 산수의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지식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1832)⑦ 그가 받은 교육은 기껏 이 정도밖에 없었다. 나머지 과목은——미국 전역의 보통 학교에서 널리 가르치고 있는 과목——그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었다.

### 첫 시현의 배경

그는 14세 내지 15세가 되었을 때 미래의 존재 상태에 대하여 준비를 갖출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사색하기 시작했다……그는 그것이 무한한 중요성을 지닌 문제이며, 그의 영혼의 구원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1832)……그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어느 교파에 가든지 모두 다 그 특정한 교리를 가리키며, “바로 이 길이야, 이 길로 걷고 있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1838)……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 원리밖에 만드시지 않았으며, 한 교회만 그의 교회로 인정하시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1842) 그리고 그 교파는 그

한 가지 원리를 믿고 가르치며(그 교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 원리 위에 세워진 백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현재 세상에 있는 수백 가지 교파를 만들어 낸 수많은 교리를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에서 결정해야 할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파 가운데 참된 교파가 있다면 어느 교파인가? 하는 것이었다. (1838)…… 그래서 그는 진지하게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성경의 거룩한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다음 성구를 읽게 되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 : 5(1838)……그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을 비치는 빛과 같았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교리 가운데 어떤 교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이며, 모든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친의 집에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 은밀한 장소인 어떤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1838)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1832, 1838) 처음에 그는 암흑의 권세에 의하여 심한 유혹을 받았는데, 그 권세가 그를 정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암흑이 그의 마음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조를 빌었다. (1838)……그리하여 그의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것을 바라는 가운데 마침내 위로 하늘로부터 매우 밝고 영광스러운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먼 것 같았다……그는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내려왔다. 그리하여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그 빛이 더욱 밝고 더욱 장엄해졌으므로 그 빛이 나무 꼭대기에 닿을 무렵에는 주변의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그 전체 광야가 극도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비쳤다. 그는 그 빛이 닿자마자 나뭇잎과 가지가 타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빛을 견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었다. 그 빛은 천천히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상에 내려섰으며, 그는 그 빛에 둘러싸였다. 그것이 처음 그에게 내려왔을 때 그의 온 몸에 와 닿는 특별한 느낌을 느꼈으며, 즉시 그의 마음은 그를 에워싼 자연적인 객체로부터 멀어졌다.

### 1820년 시현

그리고 그는 하늘의 시현에 둘러싸였으며, 두 영광스러운 분을 보았다. (1838, 1842) 두 분은 용모나 모습에 있어서 서로 꼭 닮았다. (1842) 그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다. (1832) 그는 또 이전에 한 동안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주제에 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으니……모든 교파가 그릇된 교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1832, 1838, 1842) 그리고 그 결과 그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교회나 왕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1832) 그리고 그는 그 중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1838) 그리고 참된 교리——충만한 복음을 앞으로 언젠가 그에게 알려 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1842) 그 다음에는 시현이 물러가고 그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고요와 평화의 상태로 남게 되었다. (1832)

그 이후에도 올슨은 여러 번 요셉의 첫 시현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분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고 선언했다. 밀레니얼 스타 편집장으로 봉사하면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의 개체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글에서 프랫 장로는 신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개체라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회 역사로부터 나오는 경전상의 증거와 사전을 들었다. 프랫 장로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 역사를 이용하면서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1832년 2월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으며(교성 76편), 요셉 스미스가 그의 첫 시현 때 “아버지와 아들들 모두” 뵈었다고 선언했다.⑧

프랫 장로는 그레이트베이슨(대분지)으로 이주한 후



설교할 때 가끔 예언자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거룩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올슨 프랫은 1859년 설교에서 요셉 스미스가 자기에게 그가 14세에서 15세 사이일 때 “한 시현을 보았으며...영광스러운 두 분을 리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한 분을 가리키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복지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교회 가운데 아무 교회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또 장래 언젠가는 충만한 복음이 그에게 알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선언했다.⑤

3도의 빛/1986년 2-3월호

### 올슨 하이드의 간증

예언자가 자신의 역사적인 기록을 출판하기 전에 그 첫 시현을 설명하는 팜플렛을 출판한 요셉 스미스의 또 다른 절친한 친구는 올슨 하이드였다. 하이드 장로는 1830년대 대부분의 시간을 커틀랜드에서 예언자의 집 가까이 살았으며, 1831년 10월 30일에 침례받은 다음에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의 처음 두 동반자는 요셉의 친형제인 하이람과 사무엘이었다.

1833년에 그는 예언자로부터 예언자의 학교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그는 신앙과 능력으로 인하여 1835년에는 십이사도 평의회 첫 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1830년대에 예언자와

함께 여행할 기회를 여러 번 가짐으로써 예언자와의 친분이 강해졌다.

하이드 장로는 나부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인 이후 팔레스타인으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고, 거기에서 그 성지를 유대인이 모이도록 헌납했다. 하이드 장로는 1842년 8월에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땅의 티끌로부터 나오는 소리라는 선교사 책자를 출판했다.⑥ 이 책의 주요 출처는 올슨 프랫의 놀라운 시현이었지만, 하이드가 쓴 책자에는 이전에 프랫이 쓴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개와 머릿말이 있고 좀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 있었다.

하이드 장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서 요셉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

기도에 관한 야곱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자기 부친의 집 근처에 있는 숲에서의 기도, 악마가 존재한 것, 암흑에 뒤이어 빛이 나타난 것을 설명했다. 요셉의 시현을 설명하면서 하이드 장로는 요셉이 용모와 모습이 서로 닮은 두 영광스러운 분을 본 것을 기록했다. 그들은 모든 교파가 교리에 관하여 과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도 그의 교회 또는 그의 왕국으로 생각하지시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와 충만한 복음이 그에게 제시될 뒷날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이드 장로는 그 시현이 끝난 후 요셉의 영혼이 화평과 고요로 가득 차 있었다고 끝맺었다.

### 첫 시현에 관한 다른 설명

말일성도만이 요셉 스미스가 말한 그 첫 시현을 설명한 동시대의 인물은 아니었다. 피츠버그 거젯트의 편집장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는데, 그는 나부에서 예언자와 접견하고 그에 관한 기사를 하나 적었다. 편집장은 첫번 시현이 있기 전의 혁신, 어린 소년이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하는 탐구, 요셉이 기도에 관한 야곱의 훈계를 따른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요셉 스미스가 이야기한 첫 시현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요셉 스미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나는 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한 영광스러운 분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보았으며, 첫번째 분이 두번째 분을 가리키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번째 분에게 오 주어, 제가 어느 교회에 가입할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지니 그들은 모두 타락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sup>⑩</sup>

성도들과 함께 나부에 모였던 한 개종자인 알렉산더 네이바우어는 그의 일지에서 요셉이 저녁 식사를 하며 그에게 말한 것을 기록했다. 네이바우어 형제는 예언자가 성경에 있는 기도에 관한 한 구절에 크게

감동되어 숲속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말한 것을 적었다. 그의 혀가 입천장에 순간적으로 고착된 후 어떤 불을 보았는데, 그것이 점점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불 속에서 한 분을 보았는데, 밝은 용모에 푸른 눈을 했으며...(다른) 분이 그분의 옆으로 왔다. 그러자 스미스씨는 감리 교회에 가입해야 하느냐고 여쭙었다. 아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며 길을 벗어났다. 선행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sup>⑪</sup>

존 테일러 대관장도 요셉과 “절친”했던 동시대 사람으로서, 예언자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첫 시현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그와 함께 여행해 왔다. 나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그와 함께 해왔다. 나는 온갖 종류의 평의회에서 그와 친분을 맺어 왔다. 나는 그가 공적으로 대중을 가르치는 것과 그가 친구와 친지들에게 좀 사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수백번이나 들었다. 나는 그의 집에 머물러 왔으며, 그가 가정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아 왔다. ...나는 그가 카테지에서 살해당할 때 그와 함께 있었다...나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 앞에서 그가 선하고 명예롭고 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그의 사적 및 공적 성품은 흠잡을 데가 없으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죽었다는 것을 간증한다.”<sup>⑫</sup>

테일러 장로는 요셉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그것에 관하여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방식과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매우 무지했으며, 그것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의 종교 문제, 체제, 이론을 잘 모르는 소년이었다. 그는 야고브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갔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가서 여쭙었으며, 주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 관하여 여쭙었다. 그는 올바른 길을 알고 그 길 안에서 걷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여쭙었다. 그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옳지 않으며, 모두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씀을 들었다.”<sup>⑬</sup>

테일러 장로는 요셉 스미스로부터 첫 시현에서 나타난 진리를 직접 배웠다는 것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교회 조직 이전의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 요셉 스미스의 1838년 역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했다.

1880년 10월, 교회 제50차 반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은 테일러 장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였다. 이 지지가 있는 다음 테일러 대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대관장단 제1보좌인 조지 큐 캐논 부대관장이 새 교리와 성약과 요셉 스미스가 첫 시현에 관하여 1838년에 쓴 기사가 담겨 있는 값진 진주를 각각 회중에게 제시하였다. 그는 참석자들이 그 책과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를 한 백성으로, 한 교회로 묶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대관장단 제2보좌인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이 회원들에게 그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계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동의안을 내놓았다.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값진 진주에 있는 첫 시현과 기타 내용 및 교리와 성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sup>⑭</sup>

이 지지에 의하여 대관장단, 십이사도(그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요셉을 알고 있었다.) 및 나머지 교회 회원들이 1820년대에 시현을 본 것을 설명한 요셉 스미스의 1838년 기록 역사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간증했다.

1830년부터 현재까지 총관리 역원과 온 세상의 말일성도들은 첫 시현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과 기록이 참됨을 확고하게 간증해 왔다. 예를 들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요셉에게 주어진 이 전체 시현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수세기 동안의 안개를 깨끗이 없애는 목적에 부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느낌, 숨겨진 음성, 꿈은 옛날의 환상이나 잘못된 개념을 흩어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즉 구속주요 우리의 구세주께서 직접 이 소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그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뵈었습니다.”<sup>10</sup> \*

주

1. 이 기사들은 1832, 1835, 1842년에 기록되었다. 예언자는 1832년에 경험한 기록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으로만 남아 있었다. 1835년 기록은 그의 커틀랜드 일기에 기록되었으나 예언자는 그것을 자기가 출판한 교회 정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838년 기사는 요셉 스미스가 1838년 봄에 시작하여 1839년 11월 이전 어느 시기에 완성시킨 역사의 일부였다. 이 역사는 원래 타임즈 앤드 시즌즈에 1842년에 출판되었으며, 1878년판 값진 진주에 포함되어 1880년에 교회가 이것을 경전으로 받아들였다. 웨스트위스 레터로 알려진 1842년 기사는 예언자가 준비한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것은 그의 1838년 역사가 연재물 형식으로 출판을 시작하기 직전인 1842년 3월에 출판되었다.

2. 조셉 그랜트 스티븐슨, “에드워드 스티븐슨의 생애”(석사 학위 논문,

브리검 영 대학교, 1955년), 19-20페이지. 에드워드 스티븐슨, 예언자 요셉 회상록 및 물문경 출현(솔트레이크시티, 1893년), 4페이지.

3. “올슨 프렛의 역사,” 밀레니얼스타, 1865년 2월 11일, 88페이지.

4. “올슨 프렛에 의하여”라는 이 선교사 팜플렛의 출판에 관한 말은 요셉 스미스의 역사에서 1840년 12월 날짜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나타났다. “9월, 에딘버그,” 교회 정사 4 : 254.

5. 설교집, 7 : 220

6. 첫 시현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기사는 밀턴 브이 백맨 이세의 부록 요셉 스미스의 첫

시현(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0년)에서 출판되었다.

7. 요셉 스미스는 그의 1832년 역사에서 가난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과 자기 형제 자매들은 교육의 혜택을 박탈당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읽기, 쓰기 및 산수의 기본적인 규칙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며, 이것이 내가 받은 학문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요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저술. 딘 시 제시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4년 4페이지)

8. 밀레니얼스타, 1849년 9월 15일, 281-84페이지, 1849년 10월 15일, 309-12페이지)

9. 설교집, 7 : 220-21

10. 하이드 팜플렛의 제목과 내용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 이 출판물 가운데 한 부가 교회 역사파에 있다.

11. 뉴욕 스펙테이터, 1843년 9월 23일.

12. 알렉산더 네이바우어의 일지.

1844년 5월 24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파.

13. 3일 밤의 공개 토론(리버풀, 존 테일러, 1850년), 23-24페이지.

14. 설교집, 21 :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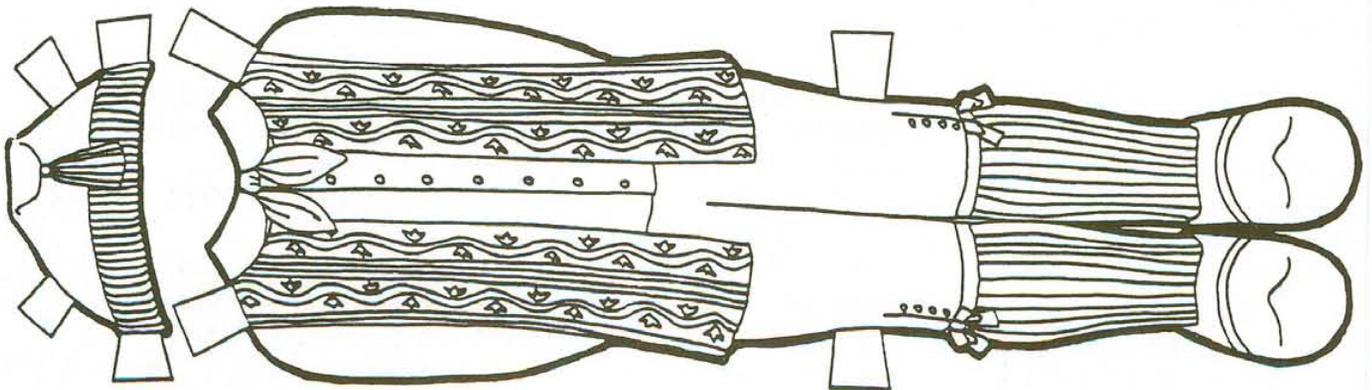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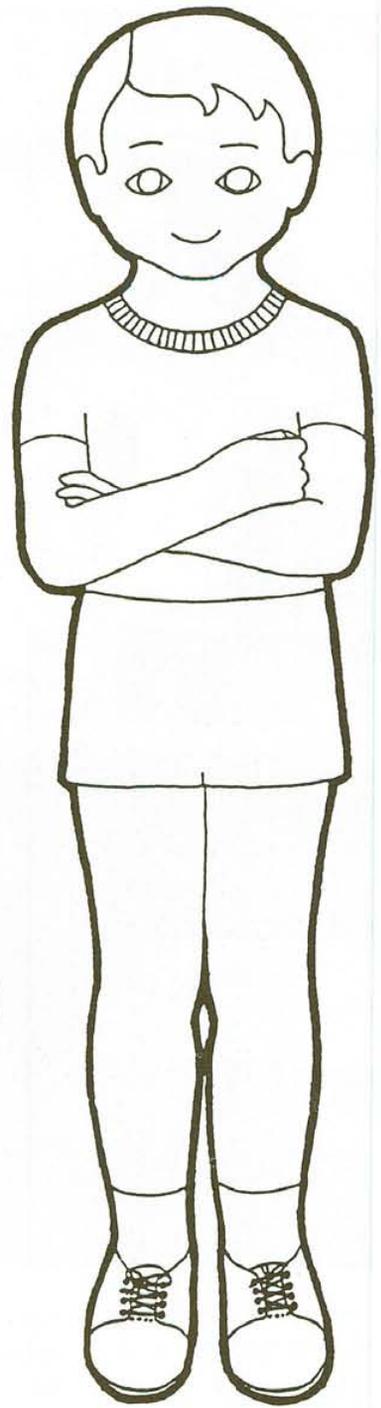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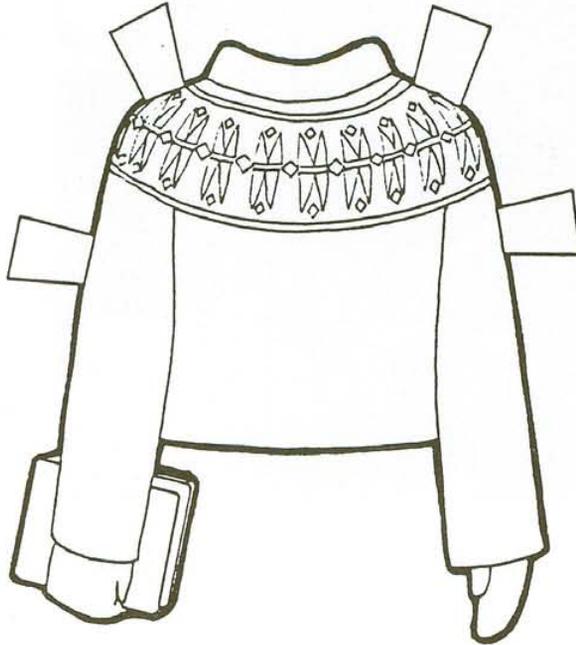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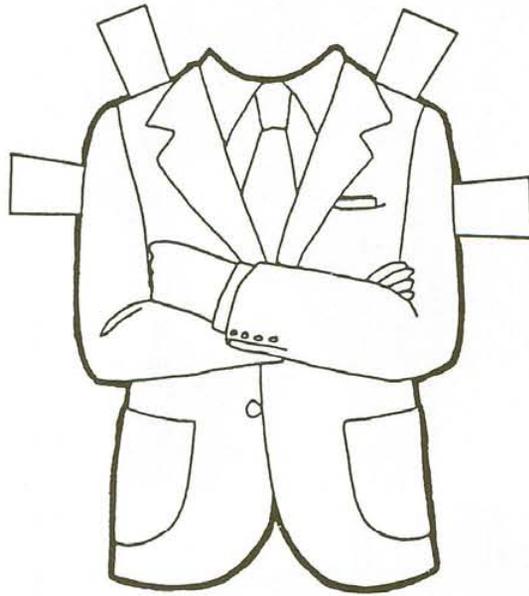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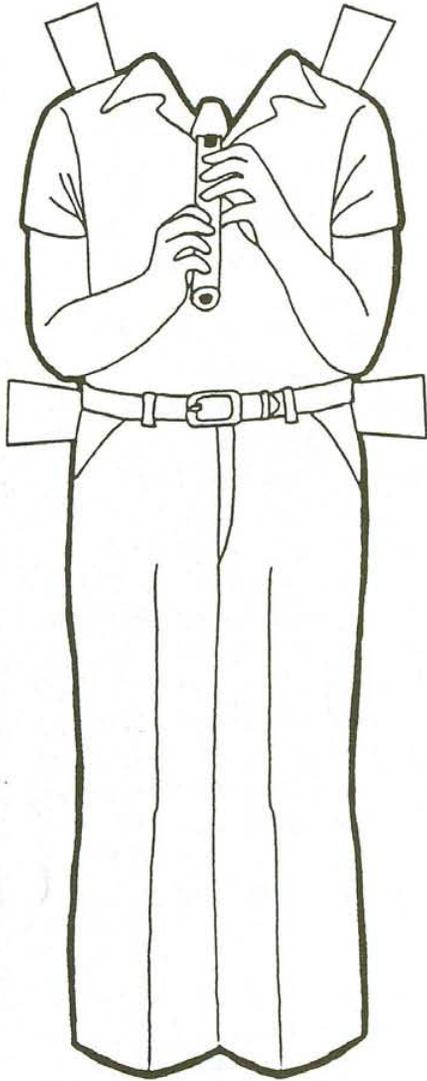
15. 밀레니얼스타 1880년 11월 15일, 723-24페이지

16. 스벤서 더블류 킴볼, 스벤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428-30페이지.

# 덴마크로부터 온 니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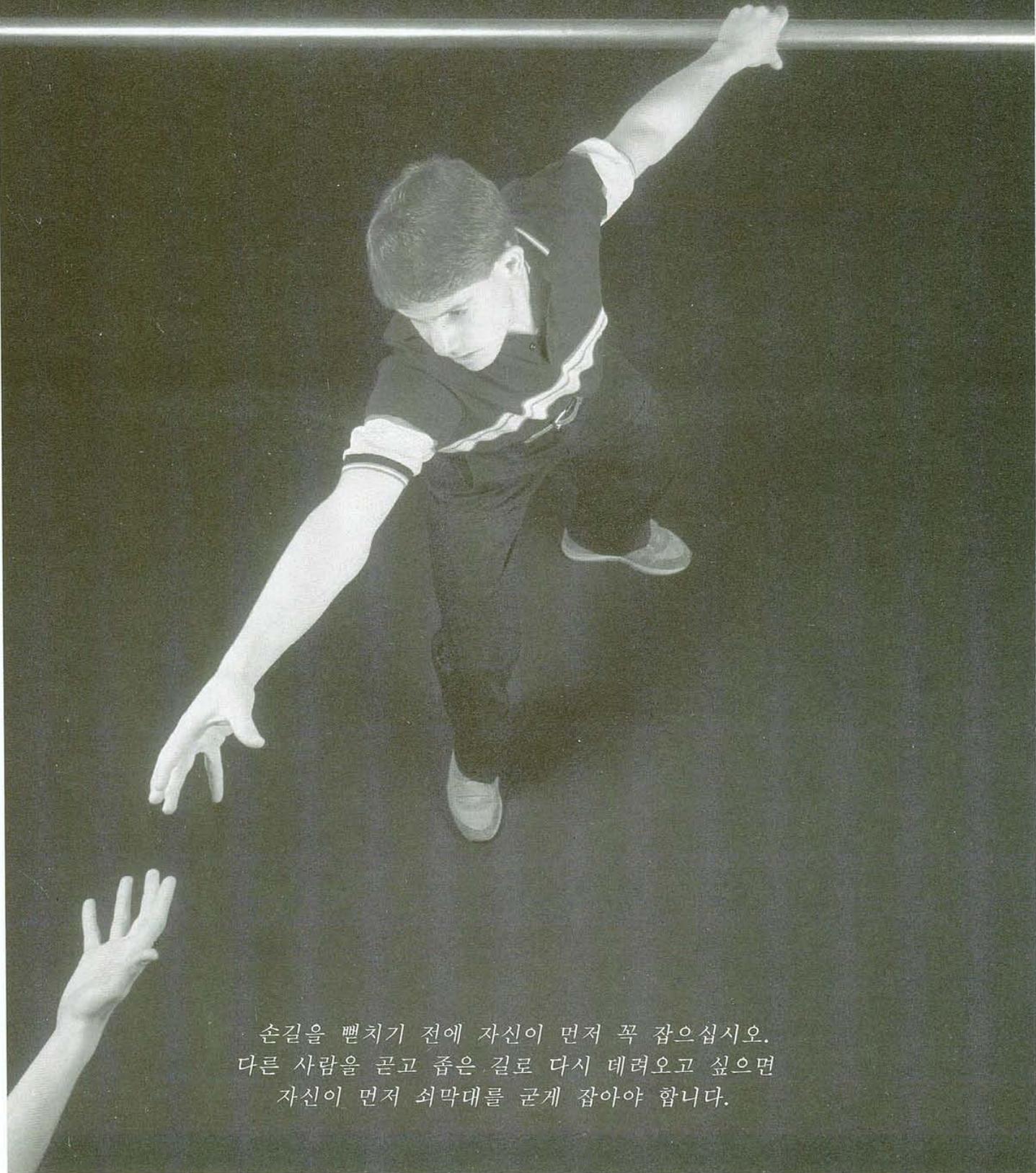
준 앤 올슨

함께 나누는 시간



몰모나드

# 꼭 잡으십시오 손길을 뺏치기 전에



손길을 뺏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꼭 잡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끈고 좁은 길로 다시 데려오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쇠막대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 친구가 친구에게

재닛 피터슨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와 개인 접견을 한 것으로부터.



**바**바라 윈더는 1930년대 초기의 대공황 시절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이스트 밀크리크에서 자랐다.

“어머니께서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그 불쌍한 어린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과일과 딸기와 나무 딸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일을 많이 따고, 우리 정원에서 일하였습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졸업 그 지방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여 가게를 도왔습니다. 유타 대학에 다닐 때는 사무실 일을 하여 학비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었지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또 어머니가 순종의 원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롤러 스케이트 한 켈레를 받았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언덕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타지 말아라. 너에게 굉장히 어려울거다. 우리 집 동쪽에 있는 단단하고 평평한 곳이 훨씬 더 쉬울거다.**” 그러나 나는 언덕을 내려가는 스릴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양쪽 무릎을 심하게 긁혀 울면서 돌아온 것은 5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만일 내가 순종했다면 다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왔으며, 만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면 수많은 어려움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큰 낚시 여행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우리는 아이다호주 맥케이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나는 그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 왜 아빠가 해줄 수 없습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낚시하는 것을 배우고 싶으면 무엇이든 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바늘에 미끼를 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고기를 잡았을 때 나는 그 미끌미끌하고 흔들거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고기를 깨끗이 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한 손에 쥐고 배를 찌서 내장을 깨끗이 꺼내야 했는데, 그것은 매우 불쾌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혜로운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필요한 것을 실제로 전부 다 하지 않고는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맏이였습니다. 나보다 불과 18개월밖에 어리지 않은 남동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매우 친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년이 1년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나보다 6년 반이 어렸는데, 나는 자라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된 것같이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내 여동생이 아직 상당히 어릴 때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동생에 대하여 큰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 16세가

되었을 때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아기도 사랑했으며 굉장한 기쁨과 찬탄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우리 4형제 자매는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누군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고모는 간호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막내 여동생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한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모와 고모가 함께 삶으로써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그 시절에 도움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나는 이모 고모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홀몸이 되신 할머니께서 여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뿌리와 할머니의 중요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집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느꼈으며, 외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맛있는 음식이 생각납니다. 외할머니에게는 8자녀가 있었으며, 모든 것을, 예를 들면 파이나 빵덩어리를 10개 이상 구우셨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와 할머니는 두 분 다 상호부조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망인들을 돌보고, 특별한 명절에는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의 자녀들은 그 음식을 그들의 작은 마차로 전해 드리고, 그 미망인들을 돕고,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 주기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에게 대한 원더 자매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머물러 계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것이다. \*



#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께 자녀에 대한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되었을 무렵 그녀는 뱃속에서 이상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녀가 쌍둥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클 것이고, 형이 아우를 받들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윽고 리브가가 사내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첫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둘은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첫 아이는 에서라고 하였는데, 살결이 붉고 온 몸이 털투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살결이 부드러운 둘째는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자라남에 따라 에서는 영리한 사냥꾼이 되어 매일 들에서 활을 가지고 사냥하며 지냈고, 야곱은 그들이 살고 있던 천막 근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숲에 팔죽을 쑤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냥에 몹시 지쳐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자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상속권”이라고 하는 어떤 축복과 특권을 만아들에게 넘겨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만아들이었으므로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는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있나?”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맹세를 하라.”고 하자 에서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에서는 상속권을 죽 한 사발에 팔아 넘겼습니다. 상속권보다 음식을 더 좋아한 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길을 가 버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이삭은 늙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더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부장으로서 이삭은 자녀에게 상속권과 축복을 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만아들인 에서를 불러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리브가가 엿듣고 달려가 야곱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지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더욱 사랑하여서 에서에 이 축복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가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가르침을 여기고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영감으로 야곱이 상속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사슴을 사냥하러 보내서 그 고기를 먹고



이사를 축복하려 한다고 말하며,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양 베들한테 가서 살찐 염소 두 마리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갖고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야곱에게 아버지께 음식을 가지고 가면 그가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시다시피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더라도 나 것처럼 되어 복은 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하고 말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서둘러 가서 새끼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오자 리브가는 그것을

맛있게 요리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가져 와서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자기가 준비한 빵과 고기를 들게 하고 그를 이삭에게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다가가서 “아버지!”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삭은 쳐다보았지만 거의 눈이 멀어서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만아들 에서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삭은 그렇게 빨리 고기를 가져 온 것이 이상해서 팔을 뻗으면서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 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자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말 소리는 야곱의 소리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음식을 들게 했습니다. 이삭은 배가 부르자,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무릎을 꿇고 이삭에게 입을 맞추었을 때, 그는 에서의 옷 냄새를 맡고 정말 에서인 줄 알고 만족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을 축복하여, 에서가 야곱에게 죽 한 사발에 팔아 넘긴 상속권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지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으며, 그의 형제가 그에게 열드려 절하며 섬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바로 그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많은 후손을 두게 되며, 또한 그 후손들은 거룩한 신권을 받게 되고, 지상의 모든 나라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자리를 떠난 지 얼마 안되어 에서도 이삭에게 별미의 고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하고 청했습니다.

이삭은 혼동이 되어서 “대체 너는 누구냐?”하고 외쳤습니다.

에서는 “저는 아버님의 만아들 에서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해서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 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이 상속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울었습니다. 에서는 여태까지 합당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축복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의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점으로 먹고 살며, 아우를 섬기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일로 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 버리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서의 계획을 안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알았으므로 그를 보호하여 그가 살아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큰일 났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딴촌 댁에 가 있거라.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마.”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과는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누이의 아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라반의 큰딸과 결혼하고, 그 후에 동생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반의 양 베와 가축이 적었으나 야곱이 라반의 일을 열심히 했으므로 그의 보살핌을 받아 그 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야곱은 항상 라반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특히 아름다운 라헬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레아의 슬픔을 달래려고 그녀가 아이를 갖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레아는 아들 넷을 낳았는데, 그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여전히 아이가 없어서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침내 아들 하나를 얻으니,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14년의 봉사 기간이 끝나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라반은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이래로 여러 모로 라반을 축복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여기 머무르면 자네가 바라는 대로 해주겠네.”하고 간청했습니다.

야곱은 출생지인 가나안을 20년이나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도록 명하셨을 때, 그는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므로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에서의 땅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사자를 먼저 보내어 에서에게 그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놀라서 무리와 양 떼와 가족을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한 쪽을 공격하더라도 다른 쪽은 도망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주께서 이제껏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그와 그의 가족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겸손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가족 앞에 나아가서 일곱번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껴안고 입맞추었고,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이렇게 자기를 반길 줄 몰랐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고, 그의 쌍둥이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했습니다. 야곱의 아내와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 에서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용서해 주어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고향에 또다시 오게 되어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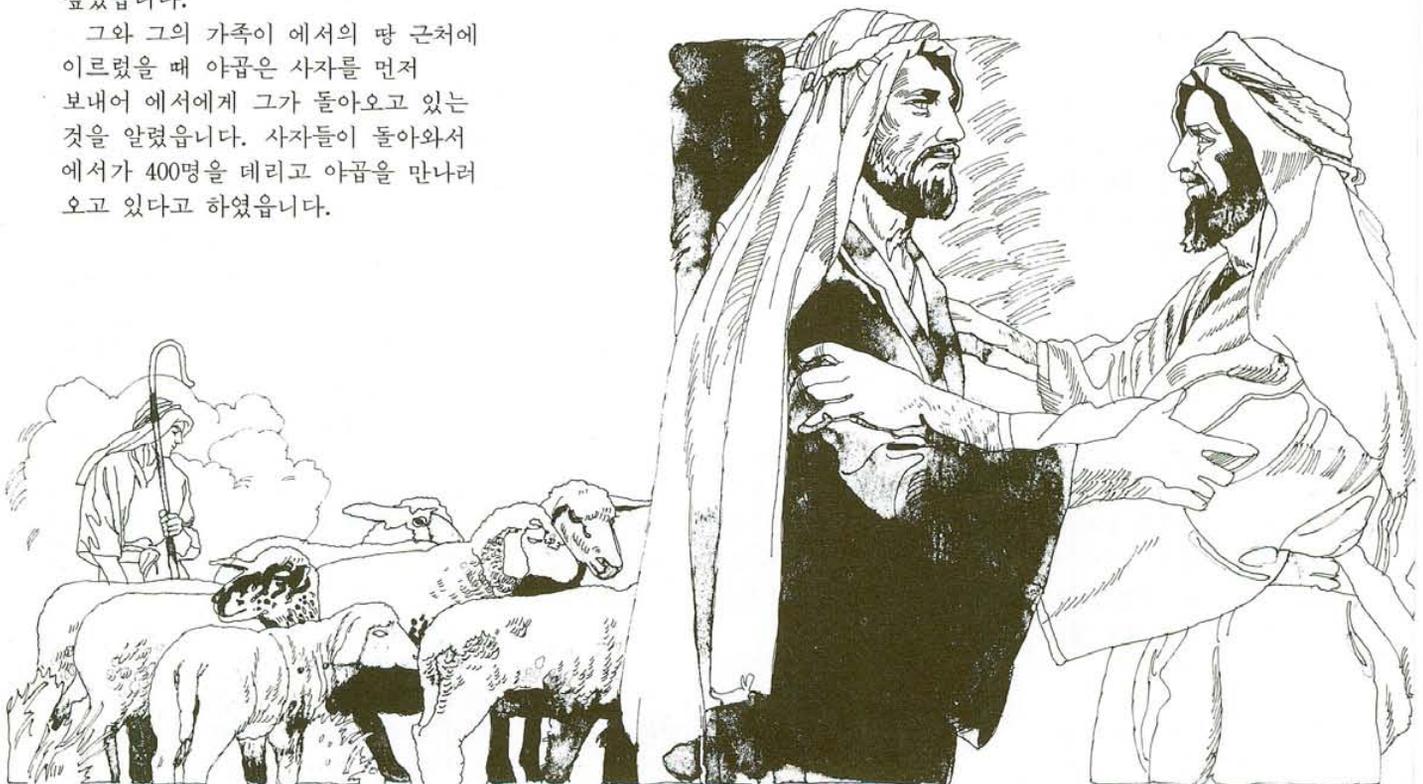
기뻐했습니다.

라헬은 후에 베냐민을 낳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를 낳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몹시 슬펐지만 그녀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가족은 각기 지파라고 불렸으니, 이른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이 열두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가져 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보호하셔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계시하신 대로, 그를 위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27장, 29~33장,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리 하스튼 작



#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팻트 그래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도록 부탁받고 눈을 감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축복——가정, 가족, 친구, 교회, 지상의 아름다운 것 등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중 몇 가지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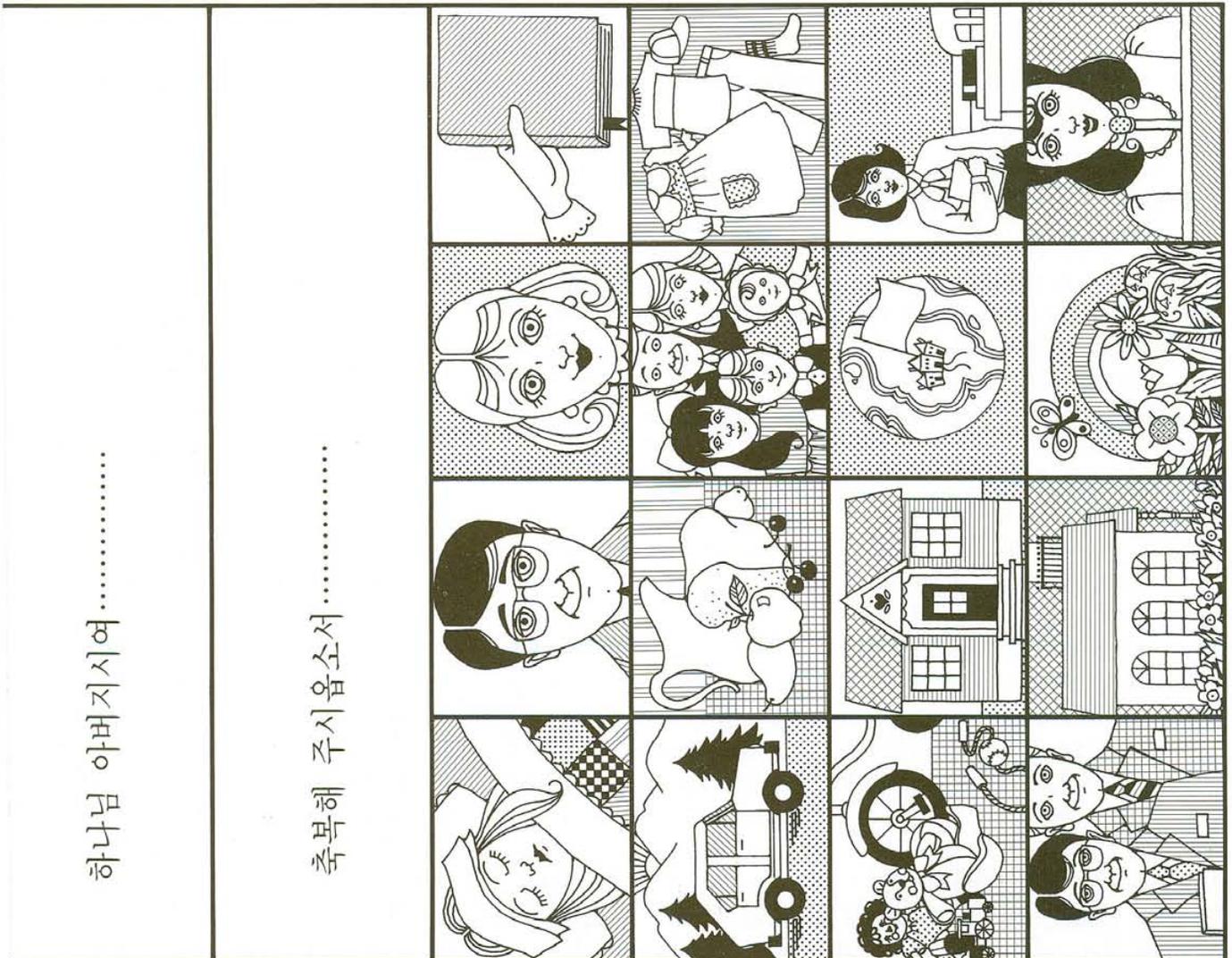
이제는 자신에게 어떤 일에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하여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위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여기 마음속으로 그림을 갖는 데 도움이 되고, 기도할 때 말할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좀 있습니다. \*

## 유의 사항

1. 말과 그림에 색칠하고 오려 냅니다.
2. 제목을 하나씩 별도의 색종이에 붙입니다.
3. 그림이 각각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결정합니다.……자신이 감사드리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그림은 양쪽에 다 갈 수도 있습니다.
4. 자신이 택한 제목 밑에 각각 그림을 붙입니다.
5. 눈을 감고 각 페이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 봅시다. 다른 것이 또 생각나면 그 그림을 더 첨가하십시오.



## “경건”



아담 디아가 장로  
제1 보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회장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  
제2 보좌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모로10 : 32)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하고 그가 목적하시는 것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만물”(니이2: 14)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창조 사업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알맞는 가정과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복음은 하늘 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는 경건한 상태만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영원한 것으로서 변하지 않고 또한, 결코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곳에는 영생만이 있고 죽음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으되 암흑은 없습니다. 기쁨이 있으되 슬픔은 없습니다. 진리는 있으나 과오는 없습니다. 조화가 있으나 무질서나 혼란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에 스스로 부여하신 특성과

상태는 그가 생활하시는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값진 진주를 읽어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 1 : 39)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 빛, 진리, 조화 및 하늘에 있는 다른 모든 경건한 상태의 일부분을 이 지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 반대되는 것을 이 지상에 허락하시어 그의 자녀를 가르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우리가 경험에 의하여 그 각각의 차이와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만사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 이 지상에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되는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죄는 슬픔과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며, 율법에 순종함은 경건한 것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서 처벌이 따르게 되며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경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보다 더 쉬워집니다.

사랑, 신앙, 미덕, 권세, 형제로서의 친절, 관용, 자선, 겸손,

근면 및 복음의 다른 모든 원리와 의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경건의 특성을 산출하는 개념이며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집합체로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특성이 충만히 존재하는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고 합당함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룩하는 일을 하려는 강한 소망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순종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완전해지며 계속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좀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같이 됩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것에 직면하면 혼동되고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우리가 경건하거나 또는 경건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따르는 결과를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운영하는 법칙의 구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거쳐 가는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직접 접근하는 수단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응답됩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으며 이것은 명령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확고한

것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본능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성신이 있어서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경건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인 경전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어떤 경우이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가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계시며 우리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고 또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크나큰 지혜도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과 함께 지상에 신권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들이 이 신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을 읽어 보며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없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있는 자도 없느니라.”  
 (교성 84 : 19-22)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도움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과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범입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회복을 통하여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는 경건한 것이 모두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과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영광이 얼마나 장엄하고 훌륭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모로나이와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모로 10 : 32)

우리는 여러분께서 경건한 생활을 하심으로 인생의 악한 반대에 대항하는 안전한 방패를 만드시고 또 이 경건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은사를 받으시도록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건한 것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 한국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민의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께 이 헌납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임하였사오며 온 세상의 구속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날을 맞음에 기쁨으로 충만하나이다. 이 집은 아세아 대륙에 세워지는 첫번째 주님의 집이오며 참으로 이 거대한 대륙에는 수십억의 당신의 아들과 딸이 살고 있으며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이 여러 세대를 살았던 곳입니다.

당신의 사업의 씨가 불과 삼 반세기 전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소수의 군복무를 하고 있던 당신의 아들들에 의해 접촉이 가능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는 위대하고 뛰어난 학자요 지도자였던 김 호직 형제의 마음을 그가 조국 땅에 돌아와 몰몬경의 영감의 감화를 체험하였고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로의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 그는 그가

새롭게 발견한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초청되었고 이로써 저들은 신앙과 영감으로 이곳에서 한 생명 저곳에서 한 생명 가르쳤나이다.

그러한 작은 출발과 심각한 고난의 때로부터 당신의 사업은 전진을 계속하여 그 무리의 숫자는 여러 곱으로 늘어났고 당신의 인자하신 손길 아래 번창하였나이다. 시온의 스테이크가 세워졌고 당신의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아름다운 나라의 비옥한 땅에 굳게 뿌리를 내렸으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터전이 되었나이다.

당신께서는 이곳의 당신의 사업에 따듯한 미소로 임하셨나이다. 이 나라의 정부는 당신의 종들을 친절로 대접하였나이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우뚝선 증거인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아름다운 전을 당신께 헌납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제까지 허락하신 일로 당신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당신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에 현세와 영원을 두고 축복드리나이다.

당신의 증으로서 합당하게 성임되고 거룩하신 신권의



한국 서울 성전

권능으로 행사하며 당신의 택하신 예언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우리는 이 전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국 서울 성전을 헌납합니다. 우리는 이 전을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인 당신께 헌납하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전을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헌납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방문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입재로 거룩하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이 집의 기초의 기초로부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또다른 증거를 가져온 천사 모로나이의 동상을 포함한 가장 높은 탑의 꼭대기까지를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집의 모든 구조물과 영원한 약속이 맺어질 성스러운 재단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대지와 이 거룩한 전의 합당한 부속물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헌납하나이다.

이 집 곧 당신의 전이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로부터 보존되며 땅의 요동으로부터 보존되며 원수의 모독으로부터 보존되며 전쟁이나 소요의 파괴의 힘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집이 늘 화평의 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사악함과 소음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적대자가 이 전의 성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이 곳에 오는 자들이 모두 정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대함에 합당하도록 하옵소서.

저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하시고 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보호의 팔로 저들을 감싸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과 사랑과 조화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당신에 대한 신앙과 충성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전이 영원한 신권의 권능으로 거룩한 의식이 집행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당신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더욱 돈독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당신과 맺은 성약이 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영원한 진리의 빛이 저들의 용모에서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수으로 있는 동안 복음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뿐만 아니라 사망의 장막 저 너머로까지 이어지는 영의 축복까지도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어린 청년 청년들이 신앙과 간증으로 성장하고 이 전에 있는 제단에서 혼약의 영원한 유대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곳에서 저들이 서로 나누는 성약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서로에 대한 사랑의 정신과 존경을 갖는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곳에서 받는 영원한 진리의 이해가 저들의 자녀가 역시 사랑과 진리로 양육되어야 할 당신의 자녀라는 지식을 깨닫도록 하옵소서. 자녀들이 당신에 대한 신앙과 충성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당신의 사업이 이 땅과 아세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더욱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박과 억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도록 복 주옵소서. 충실한 성도들을 박해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부지런함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율법에 순종하여 당신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릴 때에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충실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 앞에 가지옵소서. 저들의 오른쪽에 계시며 또 왼쪽에 계시옵소서. 저들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인도하시며 저들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의 일깨워주는 권세로 어루만지자 저들이 회복된 진리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사업의 우리 안으로 영접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세아의 다른 나라 백성들 위에도 당신의 미소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문을 열게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의 국민들도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언자를 주심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근 위대하고 선한 한 지도자의 서거와 맡겨진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준비되어 온 다른 지도자의 부름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조용하고도 훌륭한 권한의 이동이 한 지도자로부터 다른 지도자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신 벤슨 대관장을 주심을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당신의 축복이 부어져서 그가 당신의 보시기에 훌륭하며 그가 더욱 강건해지며 당신의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 튼튼할 수 있으며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헌납 의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빨리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당신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종의 훈계대로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직책을 축복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감리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저들이 맡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태도로 임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인이신 엘로힘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당신의 충실한 성도를 대표하는 우리의 간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업이 이 땅에서 크게 자라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 선한 영향이 교회가 조직되는 모든 곳에서 크게 일도록 하옵소서. 덕스러움이 말일성도의 표시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골격을 다듬으시고 축복과 행복을 위하여 저들의 삶의 여건을 인도하시옵소서. 시운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당신의 권세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메만져 주셔서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어짐으로써 당신 앞에 더욱 충실하게 견뎌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께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봉사의 결의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